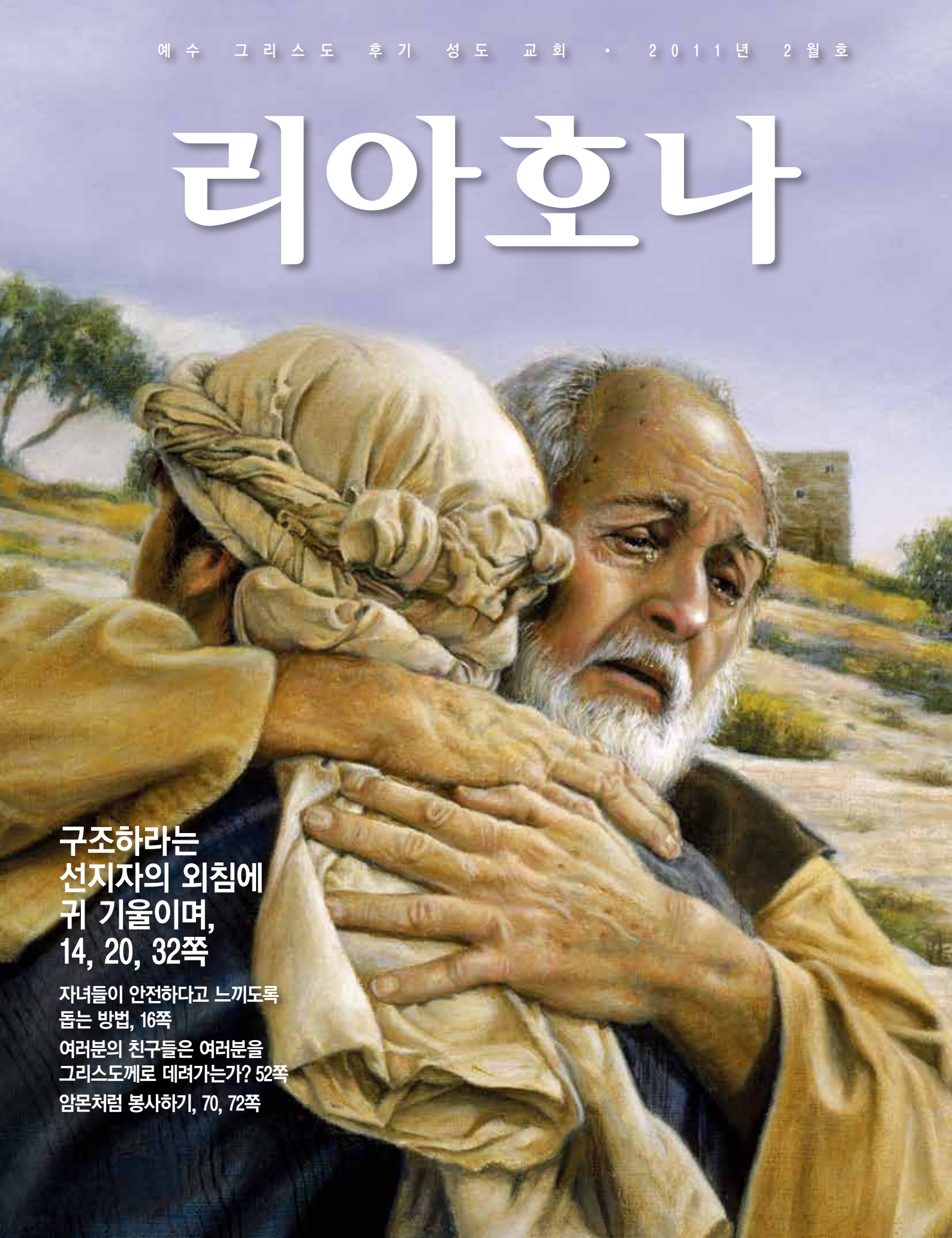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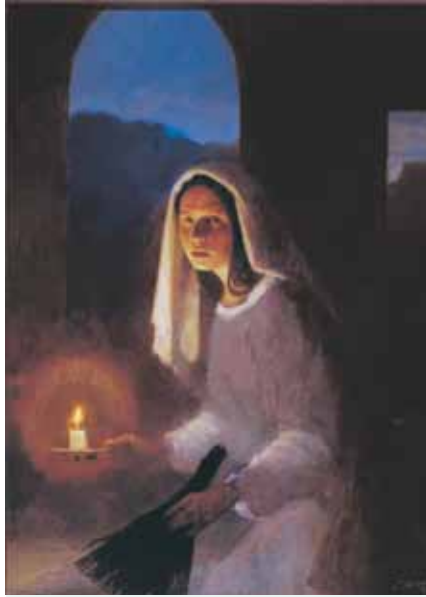


구조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14, 20, 32쪽

자녀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는 방법, 16쪽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가? 52쪽

암몬처럼 봉사하기, 70, 72쪽



누 가복음 15장에는 헤매는 양들과 잃어버린 은전, 유산을 탕진한 탕자 비유가 나온다. 그러나 목자는 광야로 찾아 나서며, 여인은 집안을 쓸며 찾아내고, 너그러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도에 낙오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구조하여 소중한 어느 한 영혼도 잃지 [말라]”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다. 32쪽 “잃은 자를 찾는 비유”에서 구조에 관한 네 가지 이야기를 읽는다.



미국 워싱턴 다시 소재 국립 미술관에 하려를 받아 게재

돌아온 탕자,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릴로

방탕한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누가복음

15:21)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반갑게 집으로 맞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24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은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나무 울타리 곁에서 노는 아이들, 앤 마리 오본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마태복음
6:28~30)



8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만유의 회복**

특집 기사

- 14 **구조받는 사람에서 구조하는 사람으로**
벤티시 도안
물문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던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통과 증독이 내 삶을 지배했다.
- 24 **영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데이비드 엠 맥콩키
영이 속삭일 때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할까?

- 28 **계시: 한 방울 한 방울**
계시를 통해 하늘까지 당도록 간증을 키운 한 젊은이의 이야기.
- 30 **계시: 하늘에서 쏟아지다**
지식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속히 쏟아진다
- 32 **잃은 자를 찾는 목자의 비유**
구조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손을 뻗고 돌아온 이를 반갑게 맞는 일입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1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의 은혜가 족하니라**
김벌리 비 개릿
- 12 **우리의 믿음: 속죄가 있었기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6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자녀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와 주세요**
손 에번스

- 20 **복음 고전: 저활동 회원을 강화합시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신랑의 연회에 초대 받다**
멜리사 메릴




표지
앞: 탕자, 리즈 레몬 스원들, Foundation Art, 복사 금지, 뒤: 잃어버린 동전, 제이 커크 리차즈.



42

42 청년 성인과 가정의 밤
청년 성인 몇몇이 가정의 밤에 참여할 때 받는 즉각적인 축복과 앞으로 올 축복을 설명하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멈추다



54

46 질의응답

“저는 교회에서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48 나는 어떻게 아는가: 말씀은 감미로웠다

앤서니 엑스 디아즈

51 정직한 십일조, 위대한 축복

오스카 알프레도 베나비데스
선교 사업을 위해 일하며 저축했지만 내 작은 급여로는 부족했다.

52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존 바이더웨이
좋은 친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54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영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될 만한 이상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57 포스터: 영원을 반영하다

58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 익명

친구들의 격려가 절실했지만 아이들은 나를 모른 채했다.



64

60 공통점이 많은 두 자매

애덤 시 올슨
페루에 사는 두 자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눈다.

62 우리가 널 데리고 갈 거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이미가 너무 아파 도보 여행을 할 수 없을 때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64 집에서도 초등회를: 경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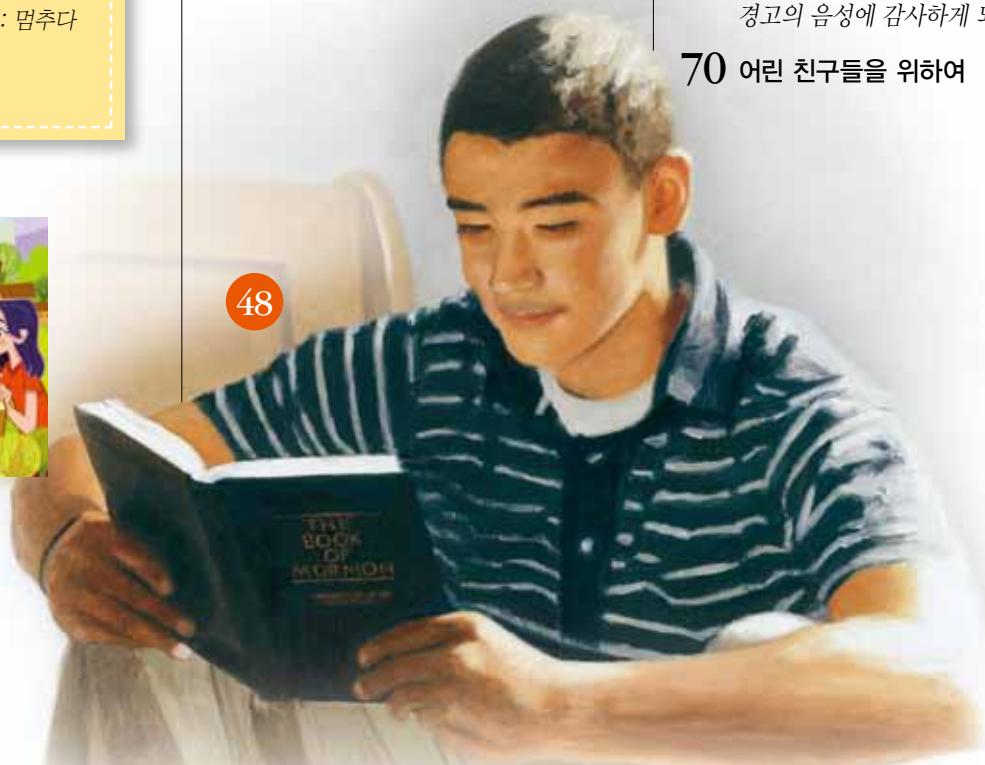
안나 마리아 코번, 크리스티나 프랑코

66 우리들 이야기

68 거미, 그리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

조슈아 더블류 호킨스
거미를 코앞에 맞닥뜨린 브리튼은 경고의 음성에 감사하게 되었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48

2011년 2월호, 제48권, 제2호
리아호나 0968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버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앨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율렌드, 데이비드 에이
벤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글든 이세, 요시히코 가부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윌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율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트, 라렌 포터 콘트,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자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피카, 채드 이 페라스, 찬 핀보로우, 리처드 롬보니, 돈 엘 설, 제인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벨 듀셔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베베커 오요,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허워드,
애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스코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32호, 제48권, 제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현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i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이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르비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지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11 Vol. 35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ids.org



성인

교회 회원이 되기 전까지 벤티 도안은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었다. 현재 교회 봉사 선교사인 벤티는
사람들이 **교회 중독 회복 프로그램**(14쪽 참조) 열두
단계를 따르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 지도서는
www.recoveryworkbook.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온두라스에 있는 동굴과 폭포 기사에서
우리는 성신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해 배울 수 있다.(28, 30쪽 참조)
온두라스에 관한 사진을 더 보려면
www.liahona.lids.org을 방문한다.

어린이

72쪽에서 왕이 가진 양을 몇 마리나 찾을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 www.liahona.lids.org에서
비슷한 놀이를 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기타 교회 자료는 www.languages.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들

숫자는 기사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 40

가정의 밤, 42, 79

가족, 16, 60

개종, 14, 48, 54

경전 공부, 64, 80

게시, 24, 28, 30, 40, 68

구원의 계획, 64

기도, 30, 38, 60

방문 교육, 7, 32, 38

복지, 10

봉사, 62, 70

부모의 본분, 16

사망, 58

상호부조회, 7

선교 사업, 4, 14

성신, 24

순종, 24, 80

십일조, 41, 51

어린이, 16

역경, 16

예수 그리스도, 11, 12, 73

용서, 12, 39

우정 증진, 46

우정, 46, 52, 58

은혜, 11

음악, 8, 9

지도력, 20

지혜의 말씀, 14

창조, 73

활동화, 20, 32, 40

회개, 11, 12, 14, 48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사 람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돕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감미롭고 오래가는 기쁨은 별로 없습니다. 그와 같은 기회와 기쁨은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서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겠대]”(모사이야서 18:9)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모든 회원은 살아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교회의 사명을 일부분 말합니다. 주님은 그 점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교리와 성약 88:81) 전임 선교사들은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선교사들에게 배우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찾아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으며, 우리는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 준비되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그들에게 복음을 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32년에 주님께서 한 선교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선교사에게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을 찾을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는 그에게 진리와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그리고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에게 또다시 곡식 단으로 면류관을 씌우리라.”(교리와 성약 79:2~3)

충실한 선교사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약속되어 있으며, 이 약속은 선교 사업에 정성을 다하는 충실한 회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보라, 나의 복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너희 앞에 있도다.

너희가 받게 될 줄로 믿는 신앙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성신을 갖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8:16~18)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알아보고 권유하도록 성신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불러 훈련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2002년 2월 28일자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감독과 와드에 더 많은 선교 사업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신권 집행 위원회는 와드 및 지부 평의회에서 도움을 받아 단위 조직을 위한 선교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는 회원들이 선교사에게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는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와드 및 지부 선교 책임자라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 책임자는 전임 선교사 및 그들의 구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을 찾는 일은 우리 각자가 맡은 의무이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성신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역의 지도자와 선교사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북돋아주십시오. 말이나 행동에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성신은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복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 꾸준하게 신앙을 가꾸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압니다. ■

주

1. "교회 소식: 워드 및 지부 선교 사업 강조",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교회 소식 2쪽 참조.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반원들이 목표를 정하도록 북돋아줌으로써 배운 원리들을 실천하도록 도와 주라고 나온다.(159쪽 참조) 가족과 함께 아이어링 회장님이 말씀하신 선교 사업의 축복을 되새겨본다. 영감을 받는 경우, 가족에게 복음을 나눌 목표를 세우도록 권유한다.
- “제일 간단한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는 아이어링 회장님의 권고를 기억하며,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가족과 함께 즉석 의견 발표(브레인 스토밍)를 해 본다. 즉석 의견 발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81쪽을 참조한다.

내 주변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다

엘리자베스 에스 스타일스

선 교사들과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일요일이었다. 교회에서 그날 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동네에서 알고 지내 온 사람들을 만났다. 학교에서 제일 친했던 한 친구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하시던 분들, 예전에 내가 그리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여자 아이하며, 심지어 한때 내가 좋아했던 남자 아이도 보였다.

이들은 각각 나에게 잊지 못할 영향을 주었다. 가장 친했던 친구는 매우 성실한 청년였고, 그 아이 덕에 나는 교회에 대해 계속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학교에서 본 적이 있다며 나를 알아본 학교 직원들은 내가 귀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 주셨다. 과거에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듬어 준 청년을 통해 거룩한 사랑과 자애를 배웠다. 십대 초반에 내가 좋아했던 아이는 너무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 아이에게서 빛이 나는 듯 했고 나는 그 아이와 계속 함께 있고 싶었다.

그 경험으로 나는 내가 선교사들과 첫 만남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시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통해 나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무엇보다도 선교 사업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을 배웠다.

복음, 같이 나누는 선물

복 음이라는 낱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가르침과 의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로 가득 찬 바구니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선물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복음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선물 그림을 해당 경전 구절과 짝을 지어 주세요. 각 그림 위에 해당 경전 번호를 적어 주세요.

1. 야고보서 5:14~15
2. 모사이야서 16:6~7
3. 제3니파이 18:1~10
4. 교리와 성약 20:72~73
5. 교리와 성약 33:16
6. 교리와 성약 89:4, 18~21
7. 교리와 성약 132:46
8. 교리와 성약 137:10
9. 교리와 성약 138:32~34





만유의 회복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교회의 주요 조직으로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회장단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상호부조회가 꼭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이고 그분의 성역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도행전 9장 36, 3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섰는데] [자신이]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 로마서 16장 1~2절에 나오는 뵈뵈는 “교회의 일꾼[이자]”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신앙과 간증, 봉사는 후기 성도 교회에서 계속되었으며, 상호부조회 조직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주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하셨던 것처럼 이 경륜의 시대 여성들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공식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1842년에 상호부조회가 조직됨으로써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여성이 맡은 구체적인 임무와 함께 여성의 단결하는 힘이 발휘되었습니다.”¹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목적, 즉 신앙과 의로움을 증진하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을 찾아 돕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맡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가 구원 사업을 돕기 위해 거룩하게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 한 분 한 분은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로서 나는 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달에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 것인가?
2. 이번 달에 나는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 중 어느 부분을 공부할 것인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 를 방문한다.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줄 리 비 벡 자매는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상호부조회가 복음의 회복에서 공식적인 한 부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다.²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1820년에 있었던 첫번째 시현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교리와 성약 98:12) 계속 이어졌다. 1842년 3월 17일에 상호부조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을 때 선지자는 회복된 교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가르쳤다.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³

- 주**
1.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달성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8쪽.
 2.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달성함”, 108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51쪽.

경전에서

요엘 2:28~29; 누가복음 10:38~42; 에베소서 1:10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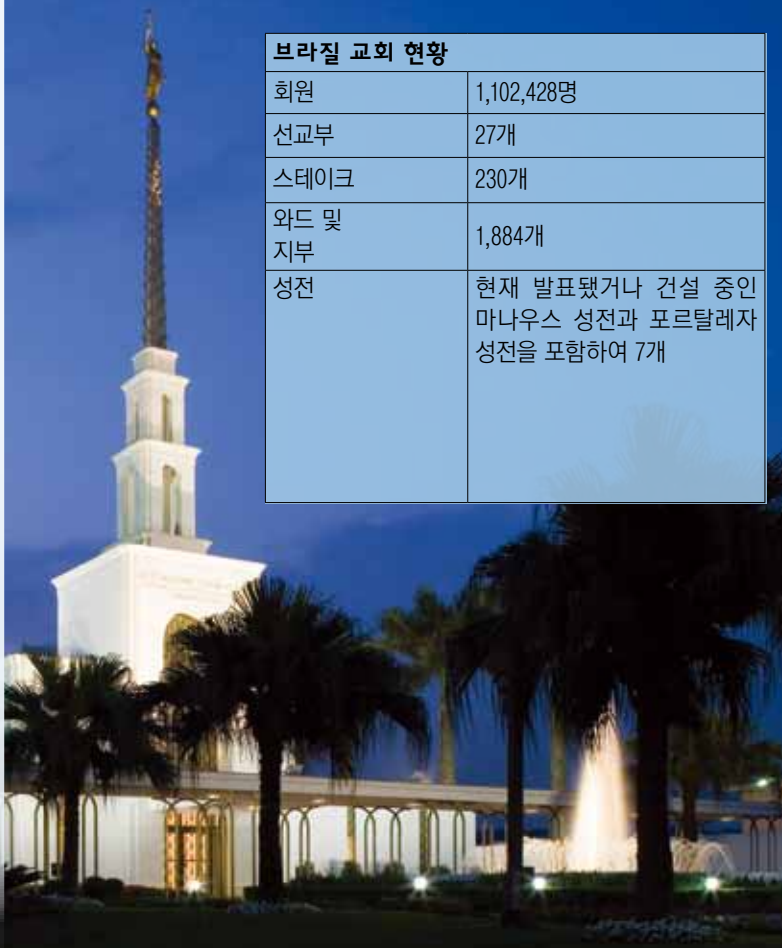
세계 교회 역사 탐방

브라질

막스 리차드 자프는 교회 회원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인 1913년에 독일에서 브라질로 이주했으며, 브라질 첫 번째 교회 회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 브라질 가족이 교회 본부에 자료를 요청한 일을 계기로 남미 선교부 회장이 1927년에 브라질을 방문했고 1928년에는 선교사들이 파견되었다. 1935년, 상파울루에 첫 번째 선교부가 조직되었으며 1939년에는 물문경이 포르투갈어로 출판되었다.

합당한 모든 남성에게 신권을 부여하라는 계시를 받고 얼마 후인 1978년, 남미 첫 번째 성전이 상파울루에서 헌납되었다.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사 훈련원도 1997년에 상파울루에서 헌납되었다.

브라질은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교회 회원 수가 백만 명에 이른 세 번째 국가이다.



회원	1,102,428명
선교부	27개
스테이크	230개
와드 및 지부	1,884개
성전	현재 발표됐거나 건설 중인 마나우스 성전과 포르탈레자 성전을 포함하여 7개

노래는 왜 부를까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회 모임과 우리 가정과 일상 생활 속으로 영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제일 회장단에서 봉사하셨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1871~1961)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제외하면, 음악만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¹

교회에서는 인터넷에서 찬송가를 들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를 구축했습니다. music.lds.org를 방문하면 음악을 지휘하는 방법과 건반악기로 찬송가를 연주하는 방법, 성찬식에 적합한 찬송가를 고르는 방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악보와 가사를 볼 수 있고, 이를 다운로드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피아노나 건반악기가 없는 회원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음악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찬송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안식일에, 가정의 밤 시간에, 경전 공부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일하면서, 놀면서, 여행하면서 함께 부르십시오.”² 찬송가는 가정에 사랑과 화합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주

1. J. Reuben Clark Jr.,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 111쪽
2. 찬송가, x.

찬송가에서 힘을 얻다



남 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에서 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마라톤을 하기로 결심했다. 경기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받고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 당일, 자리에서 일어나 경전을 읽고 기도를 드렸다. 마음이 초조했지만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활력과 도움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40킬로미터를 걷거나 뛰어야 했다. 경기는 아침 8시에 시작되었다. 선선한 날씨에 구슬비까지 내려서 초반에는 걷는 것이 즐거웠고 발걸음도 가벼웠다.

그러나 결승점을 10킬로미터 남긴 지점부터는 경기가 몹시 버거워졌다. 한쪽 다리 근육이 결리고 물질도 생겼다.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 나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 하리라
힘 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노랫말이 내 다리를 움직였다. 나는 주님의 찬송가에서 힘을 얻어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 경험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내에 관한 것임을 배웠다. 경기에서 걷거나 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다. 때로는 지쳐서 쉬다가 다시 걷기도 한다.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 걸었는가 하는 점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경기를 끝마치는 일에 관한 것이다.

크레티웨 라트소마,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회 지도자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보호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주님께서는 각 사회와 개인을 평가하실 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잘 돌보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그러하도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어 자기 스스로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풍성한 것을 취하고 나의 복음의 법에 따라 자기 몫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자와 더불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자기 눈을 들어 보리라.’(교리와 성약 104:17~18; 또한 교리와 성약 56:16~17 참조)

더욱이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현세적인 일에 있어서 너희는 평등하게 되어야 하나니, 이를 마지못해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의 풍성한 나타내심은 보류되리라.’(교리와 성약 70:14; 또한 교리와 성약 49:20; 78:5~7 참조)

우리에게는 우리 재산과 자원에 대한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이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적 사업에 후하게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경감되었습니다. 후기 성도가 보인 너그러움으로 다른 무수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빈곤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대의를 추구하는 우리 각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시온에 오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9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인도주의 원조 프로그램은 식량과 깨끗한 물, 시력 치료, 휠체어, 면역 사업, 응급 대응 등과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궁핍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힘쓴다. 시작은 단순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온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1920년대 후반: 복지 농장들이 설립되다. 수확물은 창고에 저장했다.



1932년: 첫 번째 통조림 공장이 세워지다.



1936년: 교회 총괄 복지 위원회가 결성되다. 열네 개 복지 지구를 만들어 전 세계 복지 활동을 관리했다.

1936년: 최초로 공식 취업 센터를 설립하다.

1936~1940년: 제재소와 무두질 공장, 파스타 공장, 연어 통조림, 땅콩버터 통조림, 비누 제조, 우유병 같은 제조 사업을 시작하다.

1937년: 솔트레이크시티에 최초로 지역 창고를 건립하다.



1938년: 복지 광장(Welfare Square)에서 대형 곡물 창고, 중앙 창고와 같은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하다.

1938년: 솔트레이크시티에 최초로 데저렛 인터스트리 검약 상점을 열다.



1940년: 복지 광장 시설이 완공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어려움을 겪는 유럽 회원들을 돕기 위해 식량, 의복, 기타 보급품을 대량으로 지원하다.

1960년: 복지 광장에 새로운 통조림 공장 및 우유 처리 공장이 완공되다.

1970년대: 복지 사업과 생산을 멕시코와 잉글랜드, 태평양 제도로 확대하다.

1973년: 후기 성도 사회 서비스(현,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가 교회 공식 법인으로 창립되다.

1976년: 창고 시설을 캐나다와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다. 또한 통조림 공장과 생산 시설 증설을 발표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복지 광장을 방문했다.



1985년: 아프리카에 깨끗한 우물물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인도주의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하다.



1990년대: 전 세계 빈곤과 재난에 대응한 물품 운송을 목적으로 잉여 의복 및 의료 보급품과 같은 구호물자를 분류하기 위해 후기 성도 인도주의 센터가 설립되다.

2002년: 후기 성도 자선 사업단이 휠체어, 깨끗한 물, 신생아 소생 사업을 시작하다.

2003년: 후기 성도 자선 사업단이 전 세계 흉역 퇴치 사업에 동참하여 해마다 1백만 달러를 그 사업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시력 치료 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후기 성도 자선 사업단이 세계 최빈국 중 일부 국가들에서 식량 생산을 늘리고 영양 공급을 증진하기 위해 식량 사업을 시작하다. 솔트레이크시티에 5만 6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새로운 중앙 감독 창고 시설 기공식이 열린다.

그의 은혜가 족하니라

김별리 비 개릿

만은 사람이 그렇듯이 나도
자존감을 얻기 위해 인생에서
오랜 시간을 몸부림쳤다.

여러 해 동안 체중 문제에 시달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체중은
줄었고, 지금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따금씩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들을 떨쳐
버리기 위해 분투한다.

어느 날 아침, 유독 기분이 가라앉아
있던 나는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심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이 느낌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하는 동안
이 성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일
너희에게 소망이 없으면 너희가 반드시
절망하리니, 절망은 죄악으로 인하여
오느도다.”(모로나이사 10:22)

처음에는 이 죄악이란 단어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 생각을 무시해
버리려 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모로나이가 가르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연약함을 보여 주셔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이더서 12:27
참조)

지난 이틀간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보이지 못했던 세 가지 일이 떠올랐다.
아이들보다 내 기분과 욕구에
집중했으며 아이들 감정을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더 잘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사과했고 용서 받기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자마자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그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가 찾아왔다.

마치 머릿속에 전구가 켜진 듯, 지난
세월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간단한

개념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살면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는 사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힘을 준 것이다.
사탄은 내 약점을 알며 어떤 말이
“[나를] 선동하[고] …… 멸망으로
인도[할지]”(교리와 성약 10:22참조)
안다.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아닌 사탄이었으며, 그는 모든 술책을
동원하여 나를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연약함을 좇아 나를
어떻게 도울지 온전히 아시며(엘마서
7:11~12 참조) 그분이 지니신 권세는
나를 고양시키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도록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매우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조차 약점이 있었고, 그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바울이
약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렇게 외쳤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9)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평화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할 것이다. ■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최선을 다해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할 것이다.

속죄가 있었기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진보하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보는 늦어집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지상에 거한 모든 이는 죄를 지었습니다.(전도서 7:20; 로마서 3:23; 요한1서 1:8 참조)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행하여 죄를 짓지만, 때로는 옳다고 아는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써 죄를 짓기도 합니다.(야고보서 4:17 참조)

하나님의 계명 하나 하나는 우리가 그에 순종할 때 축복이 됩니다.(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형벌이 따릅니다.(앨마서 42:22 참조) 이처럼 축복이나 형벌을 받는 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공의의 율법에 따라 부과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다면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받지 않아도 됩니다.(교리와 성약 19:16 참조) 그분의 속죄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모사이야서 15:9)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그럽이 용서하시고 형벌을 거두시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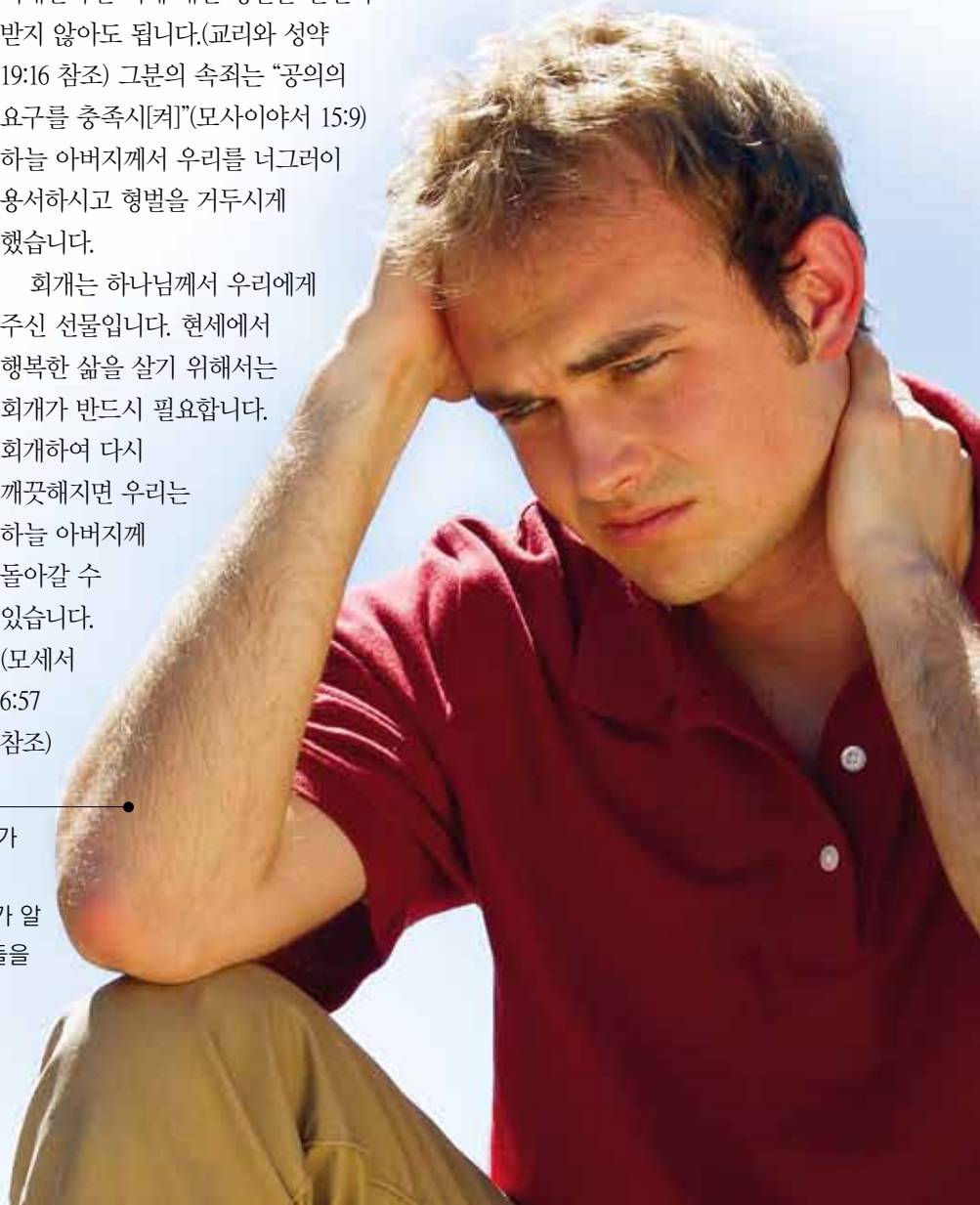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여 다시 깨끗해지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서 6:57 참조)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회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닌다.(앨마서 34:17 참조)



죄를 인식하고 슬픔을
느낀다.(누가복음 16:15;
앨마서 42:29~30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필요하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고백한다.(교리와 성약 61:2
참조)



죄를 버린다.(교리와 성약
58:43 참조)



가능한 일인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보상한다.(에스겔
33:15~16 참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다.(교리와 성약 64:9;
제3니파이 13:14~15 참조)



의롭게 생활한다.(교리와 성약 1:32 참조) ■

예수 그리스도는 겻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복음
원리(2009), “회개,” 107~113쪽; 신앙에
충실함(2004),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134~140쪽; “공의,” 30~31쪽; “자비,”
154~155쪽; “회개,” 185~189쪽; “죄,”
159~160쪽을 참조한다.



구조받는 사람에서 구조하는 사람으로

끝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진 듯한 삶을 살던 나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내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벤티 도앤

19 78년 어느 저녁, 나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에 있는 로건 공항으로 친구들을 마중하러 갔다. 그때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우리는 인생에 대해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석 달 전에 중앙 아메리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고통스러운 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렇게 떠났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9년 전에 오빠가 죽었고, 그 이듬해에는 자동차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짧은 기간 동안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잃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돈을 상속 받았다. 나는 그 돈을 쓰면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값비싼 옷과 자동차, 약물, 그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돈을 썼다.

가장 최근에 한 여행에서 나는 과테말라 티칼에 있는 피라미드를 올라갔다. 거기서 내 몸은 높은 곳에 있었지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몇 분간 그 자리에 선 채, 실존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존재께 나지막이 도움을 간구했다. 피라미드 아래로 다시 내려왔을 때에는 마음이 평온해졌다. 내 삶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어쩐지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석 달 후,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공항에서 만난 남자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그는 가만히 들어주었고 곧이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신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가족을 맞아갔단 말인가? 나는 그 남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말을 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물었다.

“물몬교에 관해 들어 보셨습니까?” 나는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곧 이어서 구원의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가 하는 말이 진실로 와 닿았다.

새로 알게 된 그 사람과 나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그 뒤 몇 개월에 걸쳐 우리는 데이트도 조금 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물몬경 한 권을 주었고, 우리는 전화로 몇 시간에 걸쳐 그 책과



다른 경전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한 조셉 스미스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희망을 품고 발전해 나가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우리의 우정은 어느 정도 식었지만 몇 주가 더 지나자 그는 나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친구 몇 명을 보내 주고 싶다고 했다. 물론 그가 보낸 친구들은 선교사였다. 그리고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브루스 도앤이란 사람이 왔다. 그는 스테이크 선교사였고, 나중에 내 남편이 되었다.

몇 주 간 공식 토론을 하고 나서 선교사들은 나에게 침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그들은 내가 침례를 받기에 앞서 지혜의 말씀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약물 남용과 음주를 과거처럼 많이 하지는 않았다. 내 인생은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습관을 완전히 끊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다. 물론 교회에 관심을 두는 나를 보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이 참되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래된 중독을 어떻게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단 말인가?

선교사들은 나에게 신권 축복을 주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뒤 곧바로 나는 가지고 있던 약물과 술을 모두 다 내다버렸다. 그날 밤에 나는 지혜의 말씀에 반하는 활동이라면 아무 일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겼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나는 1978년 6월에 침례를 받았다. 한 해 남짓 뒤에 브루스와 나는 워싱턴 디시 성전에서 결혼했다.

복음 덕분에 나는 문자 그대로 절망에서 헤어났다. 과거에는 철저히 길을 잃고 헤맸다. 부모님과 오빠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나 역시 세상을 떠난 사람 같았다. 가족들이 사망하자 내 자신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내 존재를 되찾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나를 아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부모님과 할머니, 오빠에게 인봉되었을 때 슬픔은 물러가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쁨이 자리잡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나는 중독에서 빠져 나왔다. 지난 몇 년간 남편과 나는 후기 성도 가족 봉사 중독 치유 선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신음하는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일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 구조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들이 그 점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축복임을 느낀다. ■

자녀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손 에번스

임상 사회 사업 전문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우리는 이혼과 질병, 죽음이나 사고, 자연재해, 전쟁, 실직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안전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녀가 충격적인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먼저 우리는 자녀가 그와 같은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반응은 가족의 안정성, 자녀의 나이, 정서적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태어나서 여섯 살까지

유아는 울거나 보채거나 안아 달라고 하면서 불안한 상태로 야기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종종 야기를 안아 주거나 먹여 주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기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섯 살배기 아이는 일상이 흔들릴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가령 이혼 이후 수개월간 또는 자연재해 기간 중 부모에게서 떨어질 때 아이는 몹시 불안해합니다. 부모는 되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린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가족 기도와 가족 식사처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했던 여러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성이 있을 때 아이들은 안도하고 자신감과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에서 열 살까지

연령대가 더 높은 아이들은 이사를 하거나 부모를 잃는 경우처럼 어떤 것이나 누군가를 영원히 떠나버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아이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생에 대해 격렬한 혼란을 느낍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거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들의 이성적 사고 능력이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잘못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가족 경전 공부와 기도였죠. 저는 경전을 사랑해요. 지금은 날마다 스스로 경전을 읽으려고 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에 스며드는 평화로운 느낌이 좋습니다.”

마이클 에이치,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나중에 재혼함.



깨닫고, 아이들이 흔히 하는 오해를 고쳐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열한 살에서 열여덟 살까지

열한 살에서 열여덟 살 사이 자녀들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십대 후반인 자녀들은 살던 집을 떠나 스스로 거친 세상과 마주쳐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때로 격한 감정에 휘말리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라 합니다.

부모는 저녁식사를 준비하거나 보드 게임 또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청소년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과 느낌을 나눌수록 자녀들은 더 편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겉으로 관심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부모는 자녀가 처한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¹ 자녀가 오랫동안 슬퍼하거나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또는 식욕 증진이나 감퇴, 불규칙해진 수면, 주의산만, 보통 때와는 다른 학교 성적과 같이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대가 더 높은 자녀들은 무모하게 행동한다든지, 위험한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성적인 욕구를 분출한다든지, 혹은 가족이나 친구, 사회 생활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해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서술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프다, 화나다, 실망하다, 두렵다, 걱정스럽다,



사진 촬영: 애덤 시 몽슨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경전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애니 에이, 2007년 페루에서 진도 8.0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몇 달 뒤.

“어른들은 인생이란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도록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생에서 좋지 않은 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과 삶 속에서 좋은 면들도 함께 이야기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 엠, 지난 18개월 동안 가족과 친구 다섯 명을 여의었음.



긴장하다 같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십대 자녀가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후에 무모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자녀가 하는 말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좀 더 어린 십대라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울러 충격적인 상황이 무모한 행동을 촉발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그와 같은 대화를 시작할 때 분노나 비판, 빈정거림을 표현하거나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피하십시오. 자녀가 느끼는 아픔이나 상처를 깨닫고, 이해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니 정말 슬프겠구나.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간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을 입에 댄 것 같아 염려스럽구나.” 가혹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좀처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자녀 입장이 되어 들어 주세요

간혹 충격을 받은 자녀와 대화하는 일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의 힘든 감정을 해결하지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와중에도 아버지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시간을 내셔서 인생 전반에 관해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대화할 때면 마음에 평안을 느낍니다.”

라이언 피, 라이언의 아버지는 근 1년간 실직 상태임.

못할 것입니다. 자녀가 염려하는 바를 토로하는 동안 자녀 입장이 되어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때, 그들은 위안과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녀 입장이 되어 듣는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은 자녀의 느낌을 다른 말로 고쳐 말함으로써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느끼는 바를 표현하도록 도움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을 뚫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그 친구에 대해 내가 물었을 때 너 참 슬프고 긴장한 듯 보였어.”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녀가 대화를 계속하도록 돕니다. 아이들은 대화를 자신이 주도한다고 느낄 때 입을 열기도 합니다.

자녀가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와 주세요

자녀가 불쾌한 기분을 처리하도록 도와주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이 되어 들어주는 동안 여러분과 자녀의 자녀는 그러한 감정이 어디서 야기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든다고 생각하니?” 대답을 기다리고 주의 깊게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

“세상에는 무섭고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버지는 낮 동안 전화를 하셔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 브이, 엘리의 아버지는 경찰관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책으로 여러 대안을 놓고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고려하고 있는 해결책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가 해결책을 곧바로 생각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설명하여 아이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신앙으로 응하세요

자녀가 여느 때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녀가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은 안전과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안전과 안도감을 조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경전 연구,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자녀를 돕는 방법에 대해 영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권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은 위안과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선지자 말씀대로 생활하고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 경전 공부, 성전 예배 등 가정에 평화를 불러올 활동을 계속할 때 자녀들은 더 큰 위안과 안정감을 얻을 것입니다. ■

주

1. John Gottmann and Joan DeClaire, *The Heart of Parenting: Raising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1997) 참조.



평화의 기초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심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훌륭하고 뜻깊은 자원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부모와 든든하게 받쳐 주는 형제자매가 거룩한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치는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Great Shall Be the Peace of Thy Children,” *Ensign*, 1994년 4월호, 60쪽.

저활동 회원을 강화합시다

와드와 스테이크를 이끄는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옆으로 비켜 서 주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연사와 참여자를 섭외하는 데에만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와드 성찬식 모임에 참석했는데, 저활동 남편을 둔 한 자매님이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그날은 그 자리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그날 모임을 매우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감독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회 기도는 감독단 제1보좌로 봉사하는 형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감독단 제2보좌가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 대한 걱정으로 번민하는 감독단 세 사람이 병든 사람을 낮게 할 약을, 즉 활동과 참여 기회를 병든 사람 눈앞에서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나 간증은 부탁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며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수백 명에 이르는 감독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말들에 동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동의한다는 대답을 한 감독님들은 모두 한두 번 그런 일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위험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 초대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매우 능력 있고 효율적인 한 형제님이 감리하는 스테이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스테이크 대회 세부 내용은

활 동은 봉사하고 간증을 나누는 기회이며, 치료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활동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낮게 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잃은 양을 구속하는 일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미 과도한 활동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교사가 잃어버린 양을 모임에 데려 오는 일은 그 양을 찾는 일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양에게 어떤 임무를 주면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도자가 합당함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줄 만한 임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즉 기도를 하고, 간단한 대답을 하는 일, 간증을 나누는 기회를 스테이크 회장단, 고등평의원, 감독단, 축복사, 보조 조직 지도자와 같은 활동 회원들에게만 늘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제쳐 두고



계획되어 있었고, 회장님은
오래 그렇듯이 스테이크 회장단,
고등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축복사라는 특정 범위 안에서
기도할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예를 입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 대신, 이러한 경험이
너무나도 절실한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대회
일정이 상세하게 정해졌으나
그 중 한 모임에 계획된
일정이 없는 20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
이번이 아니면 말씀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신앙을 강화하는 경험이
필요한 사람을 참여시키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유능하고 뛰어난 몇몇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해 두라고 알리면
어떻겠냐며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비회원도 많이 올 것입니다. 저희는
조직적이고 잘 다듬어진 대회에
익숙합니다. 저희 스테이크에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감명을 줄 것입니다.”

함께 모임을 하면서 스테이크
회장님은 두 번이나 일정에
대해 언급했고, 스테이크에서
“가장 유능한 연사”를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위해 그
시간을 남겨 두면 어떻겠습니까?”
회장님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장로님이 총관리
역원이시니까요.”

심화: 비온 시켈슨

일요일이 되었을 때, 이른 아침에 스테이크 회장님은 제게 누군가를 준비시켜 최고의 감명을 줄 시간은 아직 있다며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오전 모임은 스테이크 회장님이 전하는 세련되고 감동 어린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제2보좌를 말씀할 하도록 지명했습니다. 그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전에 두 보좌에게 오후 모임에서 말씀을 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 둔 상태였고, 우리는 그 형제님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은 더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원고를 집에 두고 왔던 것입니다.)

원고가 없는 그 형제님은 간증을 나누는 것으로 말씀 방향을 바꾸었고 자신이 한 주 동안 했던 일 중에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제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의사에게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한 형제가 죽음을 앞 둔 상태에서 신권 권능으로 살아났다는 일화였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의 원고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려준 간증에 담긴 영감을 따라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앞줄에는 나이 지긋한 한 자매님이 세월 앞에 왜소해져 가는 한 형제님의 손을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유행하는 옷차림을 한 회중과는 동떨어져 보일 정도로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회에서 꼭 말씀해야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씀 기회를 드리자, 자매님은 귀환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매님은 52년 전에 선교 임지에서 돌아왔는데, 그 후로 한 번도 교회에서 말씀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동적이고 가슴 찡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명을 받아 말씀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회장님은 제게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영감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시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그 도시 유권자들은 교회 회원을 시장으로 선출했는데 그 시장이 청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에게 시장의 인사말을 들어도 좋다고 하자 회장님은 시장이 저활동 회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시장에게 말씀 기회를 주라고 말했는데, 회장님은 시장이 그 모임에서 말씀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집을 피워서 결국 회장님은 시장을 연단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시장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분은 한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셨으며, 제 기억으로는 쌍둥이였던 시장의 다른 한 형제가 뒤를 이어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는 연단으로 나왔으며, 놀랍게도 신랄함과 적대감에 찬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일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시선을 떨어뜨리고 연단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마칠 때까지 그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주저한 후,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주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먹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회중 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경험한 지옥을 맛보신 적이 없는 분일 겁니다.”

그런 다음 그는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음이 참됨을 압니다. 그 사실을 항상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배웠죠.

교회는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뒤죽박죽인 사람은 집니다. 그 사실도 항상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대변하여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돌아오고 싶습니다. 저는 돌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은 저를 받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받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에게 그 점을 제대로



우리는 입구를 가로막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입구는 좁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문으로 사람들을 잡아 당기려고 애쓰는 어설픈 태도를 취합니다.

.....
 알려 주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회중이 물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 시장에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스테이크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교훈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바라는 대로 했다면 회장님은 그분 아버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형제인 감독을 불렀든지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에게 5분을 주었다면 모든 청중이 좋아할 만한 15~20분 분량의 감동적인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잃은 양도 되찾지

못했겠죠.”

와드와 스테이크를 이끄는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옆으로 비켜서 주십시오. 우리는 입구를 가로막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입구는 좁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문으로 그들을 잡아 당기려고 애쓰는 어설픈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을 들어올리려는 태도로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그들이 우리 위로 들러 올려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간증을 복돋아주는 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마태복음 9:12)

표준을 낮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표준이 낮을 때보다 표준이 높을 때 잃어버린 양들이 더 많이, 더 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영적인 훈육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훈육은 사랑의 한 형태이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훈육은 사람들 인생에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걸음마 하는 아기가 도로 근처에서 놀면 우리는 그 주위로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멈춰서서 아기가 안전한지 보고, 필요할 경우에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 자녀나 손자 손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우리는 아이를 가르칠 것입니다. 훈육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는 것은 사랑과 염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고 간증으로 굳건해지는 영적 훈육은 영혼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969년 2월 19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전한 말씀 중에서 발췌. 전문을 보려면 Boyd K. Packer,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1991년), 12~21쪽을 참조한다. 철자, 구두점, 대문자를 현대어법에 맞게 수정.



데이비드 엠 맥콩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 1보좌

영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영의 속삭임을 듣고 그에 따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타 몬티셀로라는 작은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곱 살 때 맡은 일과 중 하나는 가족이 소유한 소들을 풀밭에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칼을 아껴서 늘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을 타고 소떼를 몰다가 칼을 찾으려고 주머니를 더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길가 어딘가에 칼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무척 상심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세우고 안장을 덮지 않은 말 등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머니칼을 찾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런 후 다시 말에 올라 방향을 돌려 오던 길을 되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하자 말이 멈추어 섰습니다. 아버지는 말에서 내려 길가에 있는 깊은 흙더미에 손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흙에 묻혀 있던 소중한 주머니칼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이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토록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기적을 목격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족을 모아 놓고 복음을 가르치실 때면 종종

몬티셀로에 있는 흙 길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곱 살 난 주근깨 소년”이 드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일 말입니다.

훗날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겪은 이 일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

아버지가 소년 시절에 한 이 경험은 오래도록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직접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일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직접 배우셨습니다. 그 때 아버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알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신의 은사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분이 떠나신 후에 성신의 은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이 약속은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면 이와 똑같은 은사를 받을 자격을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복음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는 이에게 안수례를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 은사는 합당하게 생활하면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과 계속 함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신을 동반하는 것은 필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성신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신을 동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성신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노동도 너무 비싸지 않고 어떤 수고도 너무 버겁지 않으며 어떤 몸부림도 너무 힘겹지 않고 어떤 희생도 너무 크지 않습니다.”²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 즉 영의 속삭임을 듣고 그에 따르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에 합당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시의 원리를 알도록 단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고 행하기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 마음으로 듣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속삭임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서, 들리기보다는 느껴지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타이어를 확인하라

앤드류 엠 라이트

열 다섯 살 때, 애리조나 주에 있는 집을 떠나 미국 중부로 가족 휴가를 간 적이 있다. 우리는 자동차로 캔자스, 텍사스, 아칸소, 미주리, 일리노이 주 등 여러 주를 지났다.

휴가는 즐거웠다. 긴 여정 동안 차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에 우리는 한 식당에 차를 세웠다. 모두 몹시 허기진 상태였다. 차에서 내릴 때, 갑자기 차 뒷바퀴를 봐야 한다는 고요하지만 강한 느낌을 받았다. 식당을 향해 걸음을 떼었지만 그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어깨 너머로 돌아보다가 멈춰 섰다.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떠올랐다. “뒷바퀴를 확인하라.” 너무나 강한 느낌이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차 뒤편으로 다가가자 쉬익 하는 소리가 났다.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 뒷바퀴에 구멍이 나 있었고 빠른 속도로 바람이 빠지고 있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이미 식당으로 들어가신 아버지를 부르러 달려갔다.

아버지는 타이어에 바람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차를 길 아래에 있는 주유소로 가져가셨다. 타이어는 손상되지 않아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수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수리한 그 시각은 정비소가 문을 닫기 불과 몇 분 전이기도 했다. 내가 만약 그 속삭임을 무시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따랐기 때문에 계속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성신의 권능에 대해,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이 특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늘 기억한다. 그 일을 겪은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 경험은 영원토록 내 기억 속에 남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살피신다는 점을 일깨워 줄 것이다.

내면으로 밀려오는 영적인 음성입니다.”

패커 회장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감은 화평한 분위기에서 더욱 잘 옵니다. 경전은 조용한, 고요한, 평화로운, 보혜사 등과 같은 단어로 가득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이러한 약속도 있습니다. ‘너는 나의 영, 성신 곧 보혜사를 받게 될 것이요, 보혜사는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네게 가르쳐 주리니(교리와 성약 36: 2)

패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간구할 수는 있어도 결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미혹될 것입니다.”

단련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속삭임에 따라 지체없이 행하는

책임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기다립니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 음성이 속삭일 때 현명한 형제와 자매들은 순종합니다. 영의 속삭임에 따르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계속해서 영에 귀 기울이고 이를 깨닫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며”(니파이후서 28:30)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로 은혜를

받으[셨]듯이”(교리와 성약 93:12) 우리도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은혜로 은혜를 받으[시]”(교리와 성약 93:20; 또한 요한복음 1:16 참조) 것이며 “말씀에 말씀[이] 더[해지고] 교훈에 교훈[이] 더[해질]”(니파이후서 28:30)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이 서서히 단련됩니다.(교리와 성약 121:45; 128:19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능력을 단번에 통달하는 간단한 공식이나 기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여 그 신성한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느낌을 인식하고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벽차 보이기만 하던 과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쉬워질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 보이거나 들리는 것보다 느낌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질 것입니다.”⁷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 중 하나로 우리가 영의 속삭임대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 인생과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앞으로 우리가 [영의 속삭임대로] 행할 더 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영에 귀 기울이고 영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충실한 사람은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될 것]”(교리와 성약 42:61)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32쪽 참조.
2. Bruce R. McConkie,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1985), 253.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32쪽.
4. 보이드 케이 페커, “불의 갈라진 해”,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쪽.
5. 보이드 케이 페커, “계시는 경건을 통하여 옴”,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24~25쪽.
6. 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도의 빛*, 1997년 6월호, 4쪽.
7. 리처드 지 스코트,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1쪽.




특권이자 의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 싶다면 이를 얻으십시오. 이는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여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은 특권입니다. 주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이 계시로 주어질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68쪽.



계시:

한 방울 한 방울

온 두라스 타올라베 동굴 속
종유석 끝에 물방울 하나가
맺히는 모습을, 루이스
안드레스 바렐라는 가까이서 지켜
보았다. 물방울은 앞서 맺혔던 물방울의
잔여물에 조금씩 더해지면서 종유석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루이스는 종유석 그 이상을
보았다. 그는 종유석에서 교훈을 배웠다.

“종유석은 한 방울 한 방울을
통해 커집니다. 우리의 간증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맺히면서 우리의 복음 지식은
자라납니다.”(니파이후서 28:30 참조)

루이스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와 같은 사건을 떠올렸다. 하루는
가족과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루이스는 자신이 읽는 이것이 참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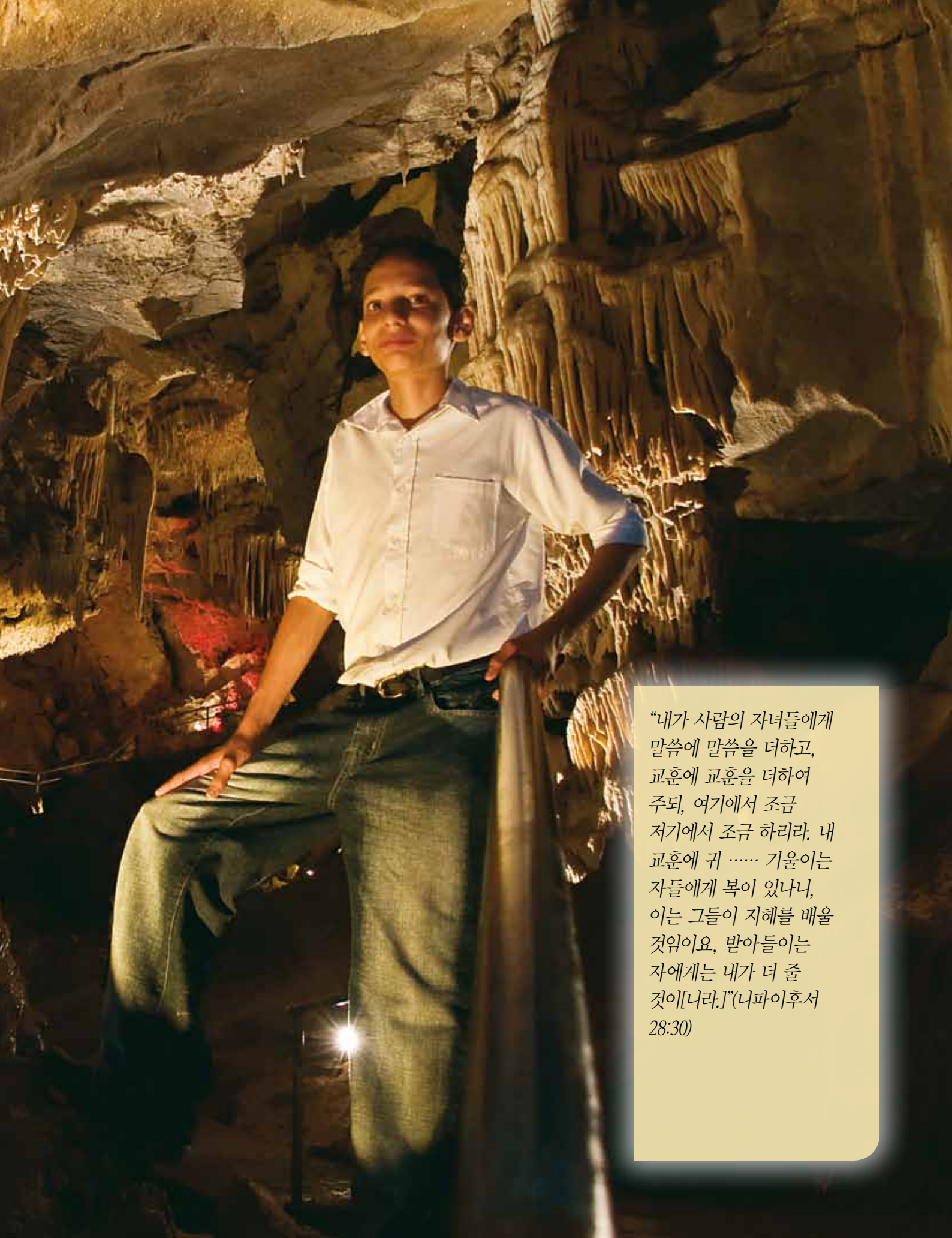
조용하면서도 위안을 주는 느낌을
받았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겨우
열네 살이지만 제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 이 교회가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고 속삭이는
성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아주 작은 종유석처럼 아직 많이 받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제
지식과 간증은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루이스는 교회에 나가고,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계시 위에 계시를”(교리와
성약 42:61) 받을 준비가 된다고 말한다.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제 신앙은
그 종유석처럼 자라나서 하늘까지 뻗어
나갈 것입니다.” ■

위 사진 촬영 © PHOTONSTOP/SUPERSTOCK. 오른쪽 사진 촬영 © 에덴 시 용스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8:30)

계시:

하늘에서 쏟아지다

온 두라스 폴하관작 폭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면 짙은 물보라에 흠뻑 젖고 말 것이다. 하지만 호세 산티아고 카스틸로는 개의치 않는다. 호세가 복음에 관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응답하신 이후로 쏟아지는 물은 그에게 의미심장한 약속을 상징한다.

호세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간구할 수 있어요.(야고보서 1:5 참조) 사람이 이 물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지식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교리와 성약 121:33 참조)

호세는 간증이 조금씩 쌓여서 자란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웠다. 하지만 그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계시는 넘쳐 흐르듯 쏟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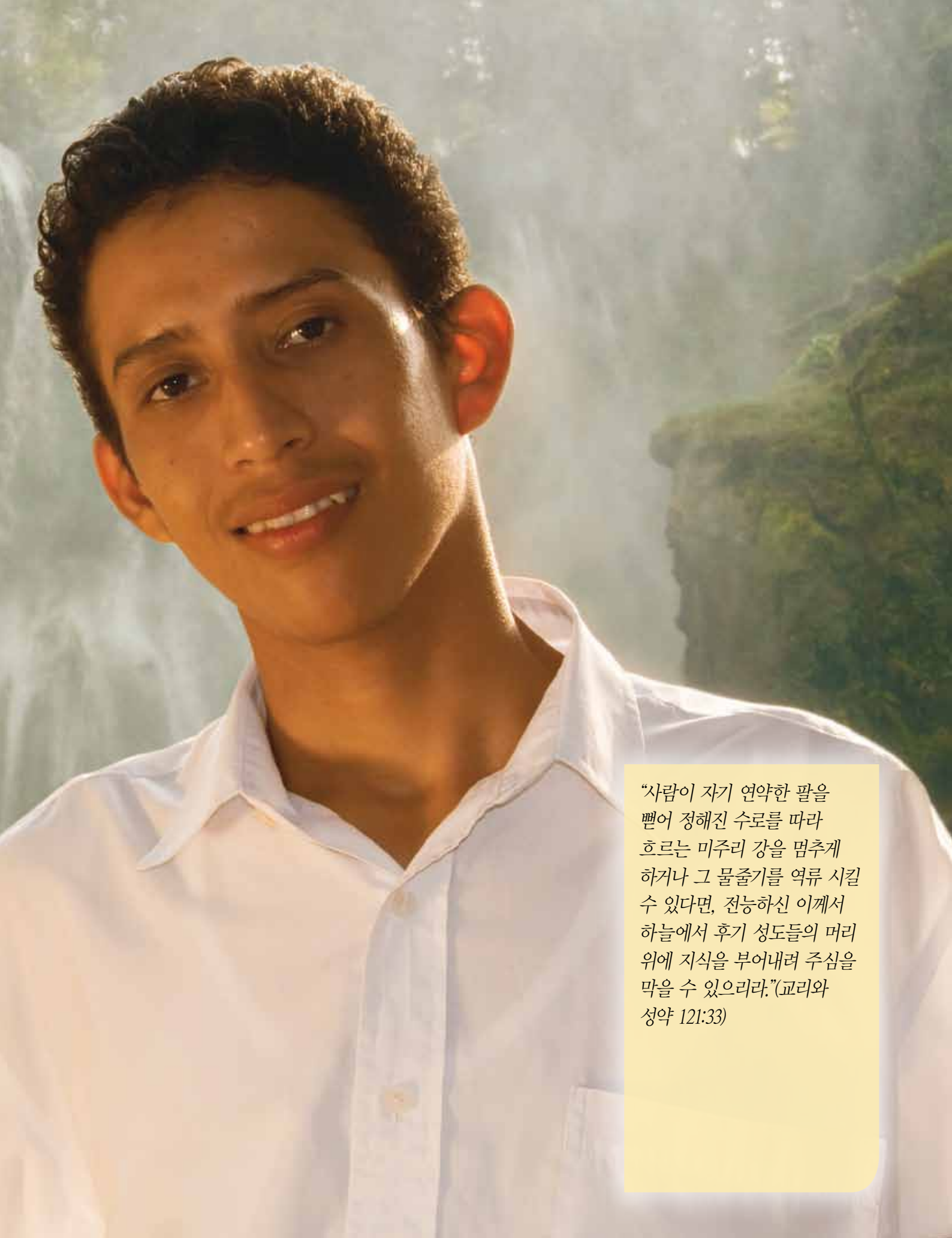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서는 십이사도에게 알려 주실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조셉에게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약한 성도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습니다.”¹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호세는 이렇게 말한다. “침례를 받기에 앞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저에게 알려 주신 물몬경과 지혜의 말씀, 십일조가 참된지 확인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분께 여쭙어 보는 것이 곧 응답을 얻는 방법이니깐요.”(모세서 1:18 참조)

하지만 우리는 계시를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호세는 이렇게 말했다. “젖고 싶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시를 바라다면 계시가 떨어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며,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15:8~11 참조)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68쪽.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 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121:33)

우리는 구주를 돕는 보조 목자로서
“중도에 낙오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구조할” 책임이 있다.

예수 가 이 런

찾는 비유

누 가복음 15장에서
구주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한 영혼의 가치를
가르치심으로써 길 잃은 이를 찾아
가족의 품과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그 비유에는 헤메는 양과
잃어버린 동전, 문란한 생활을
하며 유산을 탕진한 방탕한 아들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목자는
광야로 양을 찾아 나서고, 여인은
집안을 쓸며 은전을 찾고, 너그러운
아버지는 언제라도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며 반갑게 맞아 줄 태세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세
가지 짧은 기사는 우리가 그분의
보조 목자로서 “중도에 낙오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구조하여
소중한 어느 한 영혼도 잃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운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네게 임명한 자리를
지킬지어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7쪽.

길 잃은 양의 구주, 미네르바 케이 타이제트르트, 심화, 로버트 에이 맥케이



길 잃은 양을 구하며

도널드 제이 키이즈
지역 칠십인, 유타 북부 지역



수년 전 어느 이른 봄날, 아내와 저는 미국 와이오밍 주에 있는 아름다운 스타 밸리를 따라 차로 경치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었고, 주변 풍경은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내 재키와 저는 스타 밸리에 들어서면서 새끼 양 수십 마리가 여기저기 섞여 있는 양떼를 이따금씩 목격했습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에 새끼 양만큼 귀여운 것도 없습니다. 봄비는 길을 따라 운전해 내려가는 길에 울타리 밖 길가에 있는 한 어린 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무리로 돌아가고자 미친 듯이 울타리를 향해 돌진했다 다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그 어린 양은 몸집이 아주 작은 탓에 울타리 구멍을 밀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갈 길은 막막했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 아내와 제가 차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 양은 필경 가까운 도로로 들어가 다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은 일행들과 재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잠깐이면 돼요.”

새끼 양을 길러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저는 당연히, 저 놀란 어린 양이 저를 보면 반가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주 선한 목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양의 생명을 구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새끼 양은 자신을 구해 주려는 저를 고맙게 여기지는커녕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작은 영혼은 울타리를 따라 힘껏 달아나버렸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본 재키가 차에서 나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을 합쳤는데도 그 재빠른 어린 양을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좌석에서 로데오 경기라도 보는 듯 신나게 구경하던 두 사람이 차에서 달려 나와 구조 작전에 합류했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그 놀란 작은 양을 울타리 쪽으로 몰아붙일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여행복 차림이었지만 저는 두 손을 뻗어 그 양을 품으로 안았습니다. 그때 양의 몸에서 독특한 헛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양을 붙잡아 울타리 너머 안전한 곳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때 어린 양은 저항을 하며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작은 양은 제 어미를 찾았고, 어미 곁에 안전하게 꼭 붙어 섰습니다. 차림새는 조금 흐트러졌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커다란 만족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여러 번,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호의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 저활동 이웃을 구하기



위해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마태복음 12:12) 구구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모든 지부와 와드, 스테이크에는 길을 잃어 위험에 처한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에서 일이라는 낱말 대신에 구조를 넣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할 때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주 위해 구조할 기회 많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뒷날 하리라고 미루지 말아라
오늘 나가 선행하라!

우리 이웃들은 구조받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조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는 시간과 노력, 힘과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영원한 축복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

주

1.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찬송가, 182장 참조.



나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소냐 콘스탄스

1990년에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나는 훌륭한 가족들과 우정을 나누고 부름을 받으며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1년 뒤에 새로운 와드로 이사하고 나서는 교회에서 떨어져나가기 시작했다. 모임에 발길을 끊었고 비회원인 남자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교회가 참되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저 나 자신이 더는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때 캐시가 내 방문 교사로 지명되었다.

캐시는 처음 몇 달 동안 매달 전화를 하며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항상 캐시의 방문을 피했기 때문에 캐시는 방문하는 대신 방문 교육 메시지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매달 시계처럼 정확하게 도착했다. 그 일은 4년 동안 계속되었고 내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어떤 달은 메시지를 읽지 않고 버렸고, 어떤 달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 버리기도 했다. 결혼이

동정심 발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찾아내었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누가복음

15:4~7 참조)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 과부는 등불을 밝히고, 구석구석을 쓸어서 동전을 찾아냈습니다. 과부는 동전을 발견하고

실패로 끝나고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젓먹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내 처지를 깨닫자
갑자기 답이 알고 싶어졌다. 다달이 오는
방문 교육 메시지가 어김없이 도착했을 때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너무나 어색했고 내가 지은 죄가 내
소매에 날날이 적혀 있는 것 같았다. 교회에
가자 청년 독신 성인 프로그램에서 알고
지냈던 한 자매가 나를 반겨 주었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때 바로 캐시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캐시가 보내 준 친절한
편지에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캐시는 빙그레 웃어 보인 뒤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남편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다음 날, 직장에서 돌아와보니 자동
응답기에 캐시가 남긴 메시지가 있었다.
그렇지만 캐시에게 전화할 수가 없었다.
캐시가 나에게 교회에 더 나와서는 안 되며

내 죄가 너무 크다고 말할 것만 같았다.
캐시가 이런 소식을 전할 것 같다는 나쁜
느낌이 들었지만 그건 어쩌면 사실이었다.
의로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나는 캐시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캐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사과하고 싶어요.” 캐시가 말했다.
캐시가 왜 내게 사과해야 한단 말인가?

“일요일에 자매님을 봤을 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찬식 모임이 끝난
후 자매님 옆에 앉은 분에게 자매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땐 이미 자매님이 떠난
뒤였어요. 자매님을 봐서 정말 반가웠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다음 번에 교회에 오시면 함께 앉고
싶어요.” 캐시가 덧붙였다.

“좋아요.” 불현듯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우리는 다음 일요일, 그리고 그 후 수많은
일요일에 함께 앉았다. 캐시는 내가 더



나은 어머니, 더 나은 교회 회원, 더 나은
방문 교사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다. 캐시는
늘 판단하는 대신 인내심 있게 경청했다.
구주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캐시는 내가 엔다우먼트를 받는 날,
그리고 새로운 남편과 성전에서 결혼하는
날에도 내 옆자리에 앉았다. 캐시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까지 내 방문
교사로 남아 있었다. 캐시가 베푼 봉사
때문에 우리 가족은 캐시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다. 이 모두가 캐시가
나를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다.

기뻐했습니다.(누가복음 15:8~10 참조)

이 두 비유는 찾아 나서고, 어둠을
밝혀서 마침내 소중한 소유물이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온다는 예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봉사와 동정심을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로 돈 섬머스와
마리안 섬머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마지막
여섯 달을 스윈든 지부 회원들을 활동화
하는 일을 돕고 가르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80년 역사가 있는 스윈든
지부는 몇 안 되는 충실한 회원과
저활동이 되어 가는 수많은 선량한

회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돈과 마리안은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 스윈든 지부를 방문하여 세를 낸
차가운 집회소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조금 낙담했습니다. 모인 인원은
헤일즈 회장님과 헤일즈 자매님, 그리고
선교사 네 명을 포함하여 모두 열일곱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울 외투를
그대로 입을 채 작고 허술한 히터 옆에
둘러앉아 주일학교 공과를 들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부 회원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섬머스 장로님, 제가 충고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스윈든 회원들에게 십일조



구조할 영혼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은 혼자만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고히 해야 할
발들과 붙잡아야 할 손들, 독려해야 할
생각들과 고취시켜야 할 마음들, 그리고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굳도다 그 기초”,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8쪽.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우리 회원들은 좀처럼 십일조를 믿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사람들 마음만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섬머스 장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지부 회장님의 모범과 격려로 마음의 변화가 일었고, 나아가 신앙이 커지고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원 집을 일일이 방문할 때마다 회원 기록은 완전히 갱신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보살피기 시작하자 회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영이 지부에 퍼졌습니다. 회원들은 다시 복음에 대해 열정을 보였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

한 젊은 부부는 그들의 관습과 품행, 옷차림이 매우 달랐으므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라는 제안을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 부부는(그때 그곳은 와드가 되었으므로) 감독님에게 두 번 편지를 보내, 자신들의 이름을 교회 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그들은 어떤 회원도 자기들을 찾아와선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꽃가게에 가서 아름다운 국화 한 그루를 사서 그 젊은 부부에게

배달시켰습니다. 짙막하게 쓴 쪽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을 사랑하며, 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분이 필요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스윈든 와드 드림.

그 다음 일요일은 금식 간중 모임이 있었고, 우리가 스윈든에서 보내는 마지막 일요일이었습니다. 모두 103명이 참석하여, 여섯 달 전 17명과 비교되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도 거기 있었고, 남편은 간증을 하며 스윈든 와드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지역 와드나 지부에서 저활동인 회원들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들을 “공홀히 여기는”(유다서 1:22) 일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기라”,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87-88쪽에서 발췌.

탕자를 반기다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철십인으로 봉사

탕자의 비유에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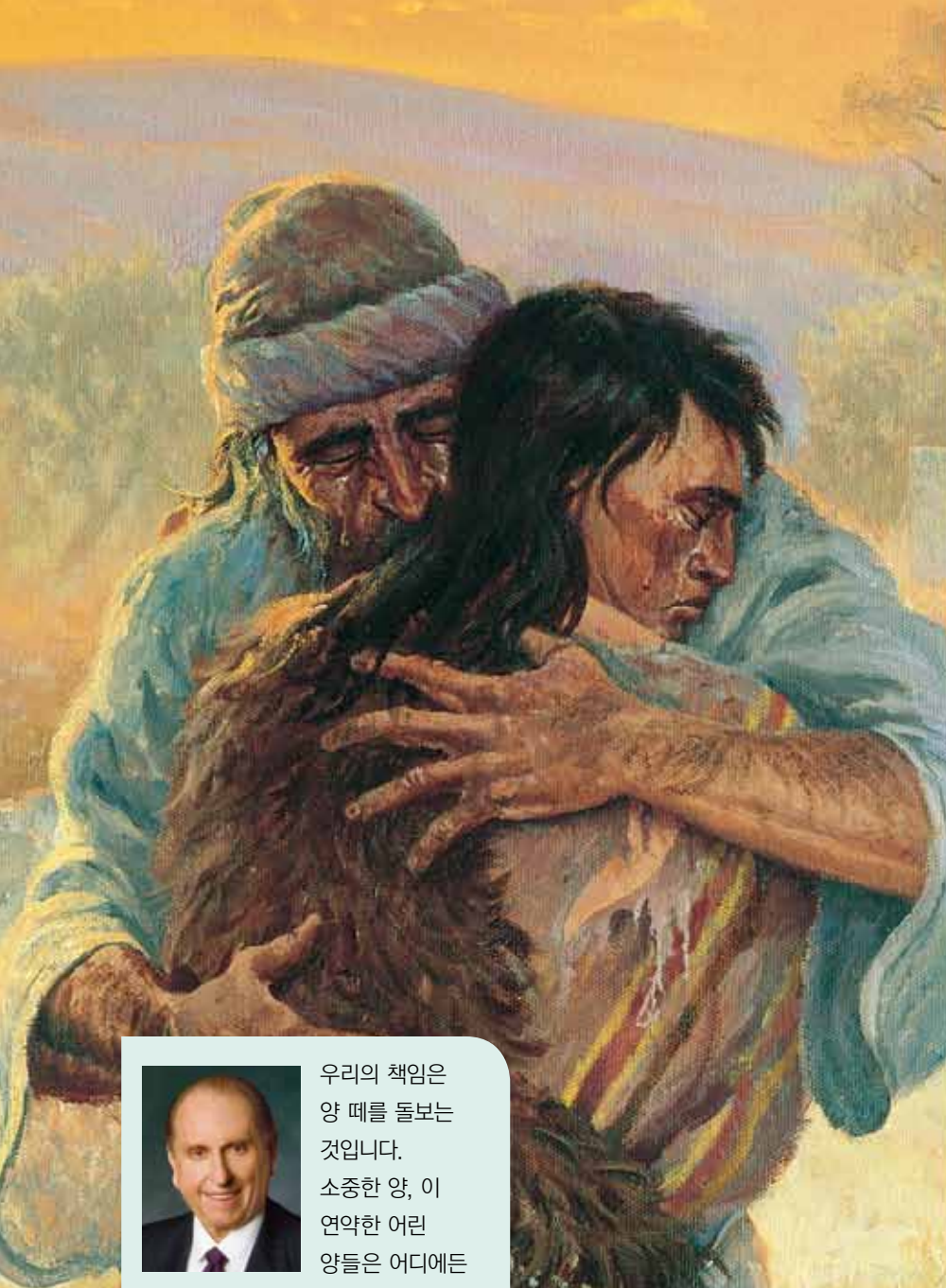
뚜렷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방탕한 삶을 산 후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앨마서 41:10) 사실을 깨달았으며 “스스로 돌이[켰습니다.]”(누가복음 15:17) 마침내

그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갈망했습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성격은 겸손으로 바뀌었고, 그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누가복음 15:21) 청소년기의 반항심과 철없는 이기심, 수그러들 줄 모르고 쾌락을 추구하던 성향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자, 우리도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솔직하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탕자의 성향이 어느 정도 존재하거나 존재했다는 점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누가복음 15:12) 하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지나치게 너그러웠다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선택의지와 선택할 자유라는 신성한 원리에 민감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원리를 두고 전세에서는 하늘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순종하도록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아버지는 벗어나는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는 사실은 다음 설명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누가복음 15:20) 아버지는 드러내놓고 아들에 대한 애정을 온몸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하인에게 옷을 내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우리의 책임은 양 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소중한 양, 이 연약한 어린 양들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우리 직계 가족의 가정과 확대 가족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부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요한복음 10:1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을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기꺼이 봉사하길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족”,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70쪽.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르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명하며 기쁨에 겨워 다음과 같이 공표했습니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누가복음 15:24)

이 아버지는 그와 같은 동정심과 용서하는 마음, 다정한 성향을 오랜 세월이 걸쳐 발전시켜 온 까닭에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가에 서서 그분의 방탕한 자녀들이 본향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버지께 순종했던 큰 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너그러운 아버지께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누가복음 15:29~30)

우리 모두에게 탕자와 같은 점이 존재하듯이 우리 각자는 큰 아들이 보여 준 특성으로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라디아서 5:22~23)로 묘사했습니다. 큰 아들이 진실로 아버지에게 순종했을지는 몰라도 순종 내면에는 독선이 숨어 있었으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탐내는 성향과,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기질이 들끓었습니다. 이 아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다. 평온보다는 전체적인 보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져 심기가 몹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

2010년 2월 9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 구두점을 현대어법에 맞게 수정. 말씀 전문을 영어로 보려면 speeches.byu.edu를 방문한다.

누군가를 보내 주세요

들 짜를 갖고 힘든 임신부 생활을 하면서 나는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약을 복용해야 했다. 약을 먹으면 피로감과 메스꺼운 느낌이 더 심해졌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성공가도를 달리는 새로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열다섯 시간을 일했다. 우리는 최근에 새로운 마을로 이사했고 부모님은 6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셨다. 나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늘상

자리에 누워 있었고 걸음마를 하는 아이를 돌봐야 했다. 두렵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하는 한 분께 의지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약속드린 지 몇 년이나 지났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저를 교회로 초대할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잠옷 바람으로 엉망진창인 거실 소파에 누워 메스꺼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일어나서 문을 열지 않았다. 몇 분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초인종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면 어떡하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 나가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남 편은 하루에 열다섯 시간을 일했고 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사셨다. 나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자리보전을 하고 있었고 걸음마 하는 아이를 돌봐야 했다. 두렵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이야기할 누군가를 보내 주신 것이라면, 내일 다시 그들을 보내 주세요. 내일은 꼭 준비하고 있을게요.”

다음 날, 나는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갖춰 입고, 하루 종일 집을 청소했다. 그런 다음, 다시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이윽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현관에 여자 두 명이 서 있었다.

“저희는 자매님의 방문 교사예요. 방문 교육이 뭘지 아시나요?”

“네, 알아요.” 그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들떠서 대답했다. “들어주세요.”

방문 교사 중 한 분은 초등학교 회장님이셨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우리 집을 들르기 시작하셨다. 자매님은 우리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 주고 전임 선교사가 방문하도록 약속을 잡아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한 방문으로 나는 간증이 강화되었고 교회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그분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고 그토록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구주께서 사랑과 자비로 내 짐을 짊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나는 그분의 사랑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다닐 때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만을 바라신다. ■

웬디 월크워약, 미국 유타 주

친구가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러 시아에 있는 교회 지부에는 모든 교회 활동에서 나와 함께 어울린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고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나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서 기뻐했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 친구가 내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것이다. 친구는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이후로 나는 그 아이와 어울리지 않았다. 일요일에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은 두 달간 지속되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슬펐지만 친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후 나는 그 아이가 우리 도시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나는 물문경에 있는 다음 구절이 떠올랐다. “네 형제에게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제3니파이 12:24)

나를 낮추고 먼저 다가가는 일은 어려웠지만, 기도를 드린 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반응할지 짐작도 할 수 없었고, 최악의 상황도 각오했다. 하지만 친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친구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며 목소리로 보아 자신이 한 행동으로 나처럼 괴로워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아이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나탈랴, 전화해 줘서 고마워!”

정말 기뻐다! 얼마 안 있어 그 친구는 이사를 갔지만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로 헤어졌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배우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려면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자존심을 극복해야 한다. 나는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일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나탈랴 표도로브나 프롤로바, 네덜란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앤디네 집 문을 두드렸다. 내 곁에는 열네 살짜리 동반자뿐이었다. 앤디의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로서 첫 방문을 하는 날이었다. 앤디는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지만 최근에 우리는 앤디를 방문하는 책임을 맡기로 했다. 문이 열리자 일본 기모노를 입은 앤디가 서 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빈이고 이쪽은 제 동반자예요. 저희는 형제님의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 형제님을 만나 뵈려고 왔어요.”

앤디 뒤로 기모노를 입은 앤디의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부부는 일본식 저녁식사를 하던 참이었다.

“저녁 식사 중이라는 게 보이죠? 우린 바빠요.” 앤디가 말했다.

“다른 때 오면 어떨까요?” 내가 물었다.

“왜요?”

“형제님과 친해질 수 있게요.” 내가 대답했다.

“왜 나랑 친해지고 싶은데요? 난 당신들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당장 앤디 부부의 가정 복음 교사 임무를 그만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갔을 때, 앤디는 우리를 들여보내 주었다. 우리는 빈 맥주병들을 골동품 자동차 모양으로 배열하여 붙여 놓은 벽을 마주보며 앉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앤디가 공군 퇴역 장성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번 방문들도 짧았고 진전은 조금뿐이었다.

어느 날 밤, 교회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앤디를 방문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됐어, 오늘밤은 안 돼.’

빨간 불에 멈춰 섰을 때 다시 한 번 앤디를 방문하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밤은 앤디를 볼 기분이 아니라고.’

집에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핸들을 돌리는데 같은 느낌이 세 번째로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 주었다.

나는 앤디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주차를 하고 인도를 간구했다.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다. 앤디가 맞아 주어서 들어가보니 탁자 위에는 몰몬경과 계보에 관한 책이 놓여 있었다. 앤디 집에 색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앤디도 어딘가 달라 보였다. 앤디는 계보 자료를 모은 어머니와 누이를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차분하게 들려주었다.

앤디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말했다. 그는 등에 통증을 느껴왔다고 말하며 내일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근처에 있는 마치 공군 기지 병원에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신권 축복을 받고 싶은지 물었다. 앤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저 없이 대답했다. “받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고, 장로 정원회 회장이 축복을 돕기 위해 앤디 집으로 찾아왔다.

다음날, 의사는 앤디가 폐암에 걸렸고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앤디는 감동음을 찾아갔다. 그리고 몇 달 안 되어 그는 몸져누웠다.

어느 날 저녁, 앤디를 방문하러 집에 도착했을 때 앤디 아내가 나를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앤디는 애처로운 상태로 누워 있었다. 나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앤디.” 앤디는 온 힘을 다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힘겹게 말했다. 이틀 후, 앤디는 세상을 떠났다.

앤디 아내는 나를 장례식에 초대했다. 앤디 가족 네 명을 제외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앤디를 방문하라는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던 것이 무척 감사하다. ■

알빈 페이지, 미국 유타 주



십일조는 미룰 수 없다

나는 십대 후반에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선교사로서 가르치게 될 원리들에 대한 간증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원리 중 하나는 십일조였다.

많은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십일조에 관한 간증을 얻는다. 하지만 나는 자라는 동안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넉넉했다. 재정적으로 궁핍해져도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 점을 나는 고맙게 생각했다. 선교 사업 비용도 부모님이 대 주실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선교 사업 비용 중 절반을 스스로 마련하고 싶어서 시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때 나는 지난 번 급여에서 십일조로 완전한 십 퍼센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다음 봉급으로 그 차액을 메워 완전한 십일조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달치 봉급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불규칙했기에 봉급도 달마다 차이가 났다. 곧바로 나는 그 보수로는 한 달 동안 필요한 지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게다가 지난 달 급여에서 주님께 빚진 십일조 잔액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선택을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 달에 십일조를 따라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나 그 순간 종교 교육원에서 십일조에 관해 배운 강의가 생각났다. 특히 주님께서

구약에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말라기 3:10)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이것은 그 원리를 시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십일조를 내고 나니 해냈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하지만 주님을 '시험'할 기회는 바로 그 이튿날 왔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더 근사한 방식으로 왔다. 바로 유치원 전임 교사 일자리를 제안 받은 것이다.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선교 사업 비용 절반을 대는 데 필요한 금액 이상이었다.

이 축복으로 나는 십일조에 대한 간증이 극적으로 커졌다. 나는 그 후 2년 동안 독일 뮌헨/오스트리아 선교부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과 그 간증을 나누었고, 그때마다 간증은 더욱 더 강해졌다.

나는 십일조의 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 쌓을 곳이 없도록”(말라기 3:10) 무수히 많은 복을 부어 주신다. ■

데이비드 얼랜드 아이삭슨, 노르웨이

곧 바로 나는 그 보수로는 한 달 동안 필요한 지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게다가 지난 달 급여에서 주님께 빚진 십일조 잔액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년 성인과 가정의 밤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 밤에 가정의 밤을 한다. 현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정의 밤은 “그룹 활동을 하고 조직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간증을 나누고, 복음 원리를 배우고, 즐거운 가족 오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화합하고 결속하는” 시간이다.¹

여기 가정의 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청년 성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 모두가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룸메이트나 워드 회원, 또는 종교 교육원 친구들과 같이 가정의 밤에 참여한다. 또 다른 이들은 혼자서 가정의 밤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모두 가정의 밤에 참여하라는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를 때 삶에 축복이 곧바로, 또는 장차 온다는 점을 안다.

인생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아오

개 종자로서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인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시의 청년 성인 센터에서 열리는 가정의 밤에 참석합니다. 저는 가정의 밤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가정의 밤에 참석하면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고, 교회 구도자 시절에 배운 복음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다른 회원들이



간증을 나누거나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들이 제 장래에 중요하게 쓰일 것을 압니다. 언젠가 제 가족을 이루었을 때에도 제가 보아 온 좋은 모범을 기초로, 어떻게 하면 즐겁고 훌륭한 가정의 밤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밤은 지금 현재 제 삶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날씨가 나빠지거나 해야 할 공부가 많은

때에는 월요일 밤 그냥 집에 머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어떻게든 가정의 밤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다른 청년 독신 성인들과 어울려 복음을 토론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 몇 명만 참석하더라도 가정의 밤은 여전히 저에게 멋진 경험입니다.

청년 성인 센터에서 가정의 밤을 할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일찍 가도 되고, 또는 늦도록 남아 공부를 하거나 피아노 연습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휴식을 취하는 등 언제든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밤에 참여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며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공부든 일이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필요한 힘을 축복받으면서, 그리고 대체로 정신적으로 고양된 느낌을 받으면서 그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레네케 로더몬드, 네덜란드

간증의 토대

저는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여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의 밤은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밤에는 가정의 밤을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청년 성인이 된 지금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가족과 계속해서 이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지속적으로 가정의 밤을 열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중요성을 잘 압니다.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몹시 바쁘고 가족 시간이 별로 없는 한국에서 가정의 밤은 함께하며 서로를 강화할 훌륭한 기회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노력으로 얻은 또 다른 축복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세울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가정의 밤 공과 덕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이 아닌 제 자신의 신앙에 기초하여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혜리, 한국

신앙을 나누는 기회

저는 스물네 살 된 청년으로, 가정의 밤을 열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저는 가정의 밤을 할 때 우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희 집에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모두는 매주 월요일이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복음 진리를 배우는 특별한 날이라는 점을 압니다. 우리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혹은 각자의 어려움이나 필요 사항 또는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와 진실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족과 사랑으로 대화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더욱 화합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또한 가정의 밤은 저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활하도록 튼튼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교회 구도자로서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전임 선교사들이 이따금 저희와 함께 가정의 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하면 저희 가족이 가정의 밤을 통해 축복을 받으리라는 점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가정의 밤을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일부로 삼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위한 가정의 밤

“가정의 밤은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것이며, 한부모 가정을 위한 것이며, 자녀가 없는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독신 성인들을 위한 것이며, 홀로 살거나 룸메이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우리는 가정의 밤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높은 자신의 가치를 개발할 수 있으며, 가족 화합, 이웃에 대한 사랑,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습니다.”

President Spencer W. Kimball(1895~1985), President N. Eldon Tanner(1898~1982), President Marion G. Romney(1897~1988), *Family Home Evening: Happines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1976), 3.

후기 성도 교회는 참되며,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레바니 부타우, 짐바브웨

확고한 우선순위

저는 가정의 밤을 우선으로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제시간에 집에 도착하기 위해 친구들과 약속을 만드는 일도 없었으며, 수업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숙제와 같이 각자가 해야 할 일은 가정의 밤을 마치고 나서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이 특별한 시간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일은 확실히 없었습니다.

저희는 자라면서 가정의 밤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모임에 부여하는 우선순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임을 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공과를 할지, 또 누가 다과를 준비할지, 누가 개회 기도를 하고 폐회 기도를 할지, 저희 가족은 그런 순서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맡았습니다. 저희는 공과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덕택에 저는 복음 지식과 간증을 얻었고, 가족들



사이에 관계가 돈독해지는 축복을 받았습시다.

가정의 밤은 제 인생에서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를 가정에서 가정의 밤이 가져올 축복을 기대합니다.

치에코 코베, 일본

향수병 치료제

저는 부모님께서 형과 동생 그리고 누나와 저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의 노력으로 수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자라며 저희는 친밀한 가족이 되었고, 곤경이나 시련의 시기가 닥칠 때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가족 중 일부는 저활동 회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정의 밤에 여전히 동참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얼마간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느라 심한 향수병을 앓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교회 집회소 가까이에 살았고, 그곳에서 열리는 가정의 밤에 다른 청년 성인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가정의 밤에 참석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을 느끼며 또래 회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린다 라이언, 아일랜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

저는 2009년 5월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 곧바로 저는 가정의 밤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때 오는 축복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 중 하나는 와드 청년 성인들이 “의자 축구” 놀이를 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실내 축구였는데, 저희는 집회소 활동실에서 그 놀이를 했습니다. 자기편 의자를

방어하면서 고무공으로 상대편 의자를 공격하는 놀이였습니다. 저는 다른 두 선수들과 연합팀을 구성했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에는 저희 세 명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그 즉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으로 마음이 상하기는커녕 계속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밖 그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압니다. 진 사람이건 이진 사람이건 모두가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특별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은 그 활동에서 제가 느낀 우정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대학원 과정에서 쏟아지는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주일을 어떻게 보냈든간에 가정의 밤에 가면 틀림없이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물론 활동이 언제나 신나고 시간을 내고



생각했고, 그 모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를 강화하기 위해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간증과 경험을 나누며 청년 성인과 친구로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중 가정의 밤은 제가 영적인 영양 섭취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종종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가정의 밤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공과나 영적인 생각을 나누는 시간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표를 정하고 되새겨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밤을 항상 하기로 다짐한 저는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또한 제가 있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

러크 라스무센, 웨일스

주

1. Joseph Fielding Smith, Harold B. Lee, and N. Eldon Tanner, *Family Home Evenings, 1970-1971*(1970), v.

싫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 가는 것을 절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트 애덤스, 미국 네브래스카 주

우리 모두의 최우선 순위

대 학교 사교 모임 참석부터 다른 스포츠나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제가 매주 월요일 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생관에 사는 학생들은 모두 후기 성도로서 가정의 밤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교회에서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 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다음 성구에서 가르치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가입할 때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됩니다.]”(에베소서 2:19)

이것은 우리가 교회 회원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과 알고 지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찬식에서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어머니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 도움에 감사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와드 및 지부에 새로 온 회원들을 환영하며 알고 지낼 수 있습니다. 열두 살이 되어 청남이나 청녀 조직에 들어오는 회원이 있으면 그들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지만 나이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민다면 더 많은 우정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와드 또는 지부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혼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참석한다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홀로 앉은 사람 옆에 앉으십시오.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우정이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몇 달 전에 저는 조국을 떠나 아는 사람이라고는 제 언니와 언니의 남자친구뿐인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 사이에 끼지 못했습니다. 두세 달이 흘러가도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어 보이며 인사를 건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이 지나갔으며, 사람들은 저한테 단순히 제 인사에 답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세미나리와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으며, 다른 청녀들과 함께 개인 발전 기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네사 비, 17세, 도미니카 공화국 라베가

다른 이들과 알고 지내세요

저도 수년 전에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진정한 제 모습을 보여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마음을 열자 그들도 곧바로 저한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원회 회원 모두와 강한 우정을 다졌습니다.

맥코이 에스, 17세, 미국 유타 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른 이들에게 웃어 주고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 남들을 도와 주세요. 외로움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 기쁨을 느끼고 외롭지 않게 됩니다. 세미나리 혹은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따뜻함과 선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이며 우리의 문제와 역경은 서로 비슷합니다.

이콜 피, 19세, 우크라이나 키예프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저는 제 또래 사람들보다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지도자들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이 교회 회원들과 친구가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 자료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잔나 제이, 18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화를 시작하세요



저희 가족은 2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교회
모임과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 워드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워드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대화도 제가 먼저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 공과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저는 친구가
되리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과
허물없는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어 브이, 16세, 미국 콜로라도 주

지도자들과 친구가 되세요



저는 여러 달 동안
교회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모임과
활동에는 재미있게
참여했지만 다른

청년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청년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지도자들은 재미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자 저도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고, 상호 향상
모임에 지도자 친구가 있게 되었습니다.

킴벌리 지, 14세, 미국 애리조나 주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교회 활동을 하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나는 친구가 없는 걸까?’
저는 슬프고 외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친구들을 보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
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과 저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이애나 아이, 16세,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

우정을 만드십시오



저도 용기반에 친구들을
남겨 두고 청년회로
올라왔기에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청년들을 도우려고
했으며, 그들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새로이 사귀고
어울렸습니다. 더는 외롭지 않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꿀벌반
회장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자매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 저는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누며, 우리 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또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레디 지, 14세, 페루 리마



**사랑과 봉사로
다른 이들에게
베꾸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종종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와드나 지부
가족 전체와 함께 어울릴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살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과 봉사로 자신을 바칠 뜻만
있다면, 와드나 지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보살피고 우정을 나눌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와드
가족의 일원이 됨”,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12쪽.

다음 질문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가끔 저에게 상반된
충고를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1년 3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3/11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말씀은 감미로웠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지만 두 젊은이가 말씀을 전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들어 보기로 했다.

앤서니 엑스 디아즈

아 기 때 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자라면서 다른 교회에 다니다 말다 하는 일을 반복했지만 종교가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 자라면서 우리 가족은 이사를 많이 다녔고 더는 예배를 보러 다니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나 종교에 대해 그리 자주 생각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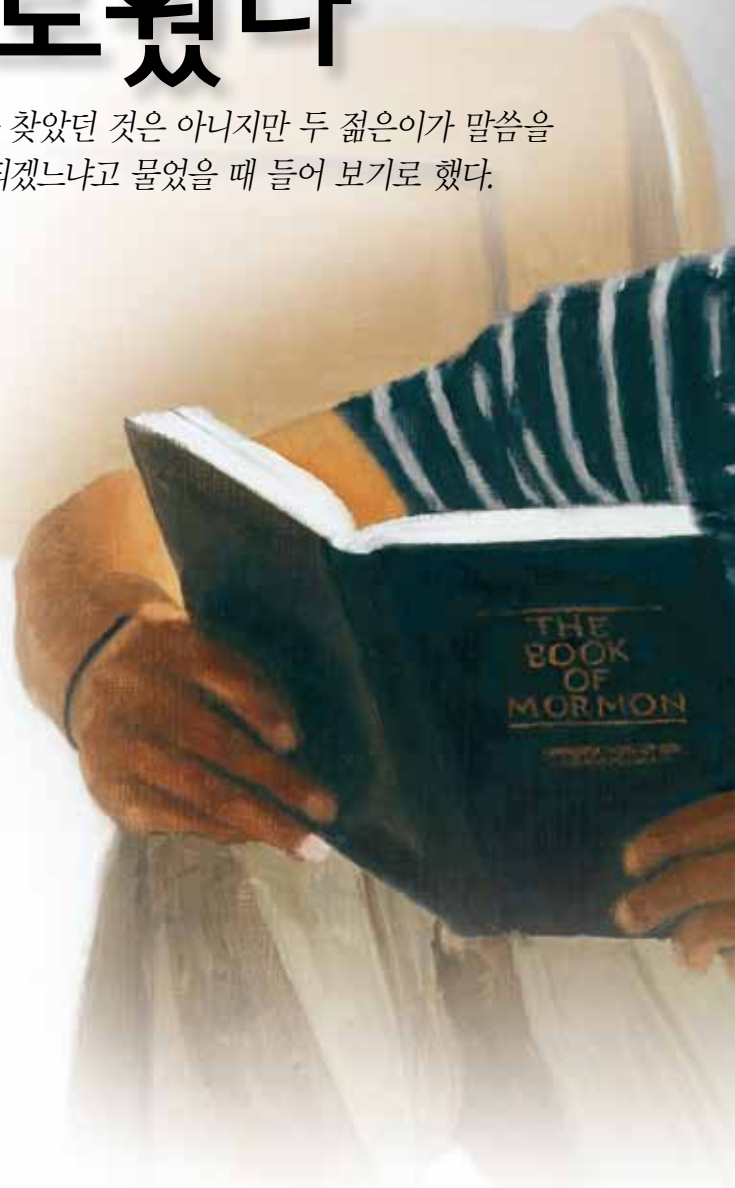
그 모든 것이 내가 열네 살이던 2006년에 바뀌었다. 그때 아직 30대 중반이었던 빌리 삼촌이 세상을 떠나셨다. 삼촌의 때 이른 죽음으로 나는 내가 삼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삼촌은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가신 걸까?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살고 미래를 맞으실까? 남겨진 삼촌의 자녀들과 가족은 어떻게 될까? 삼촌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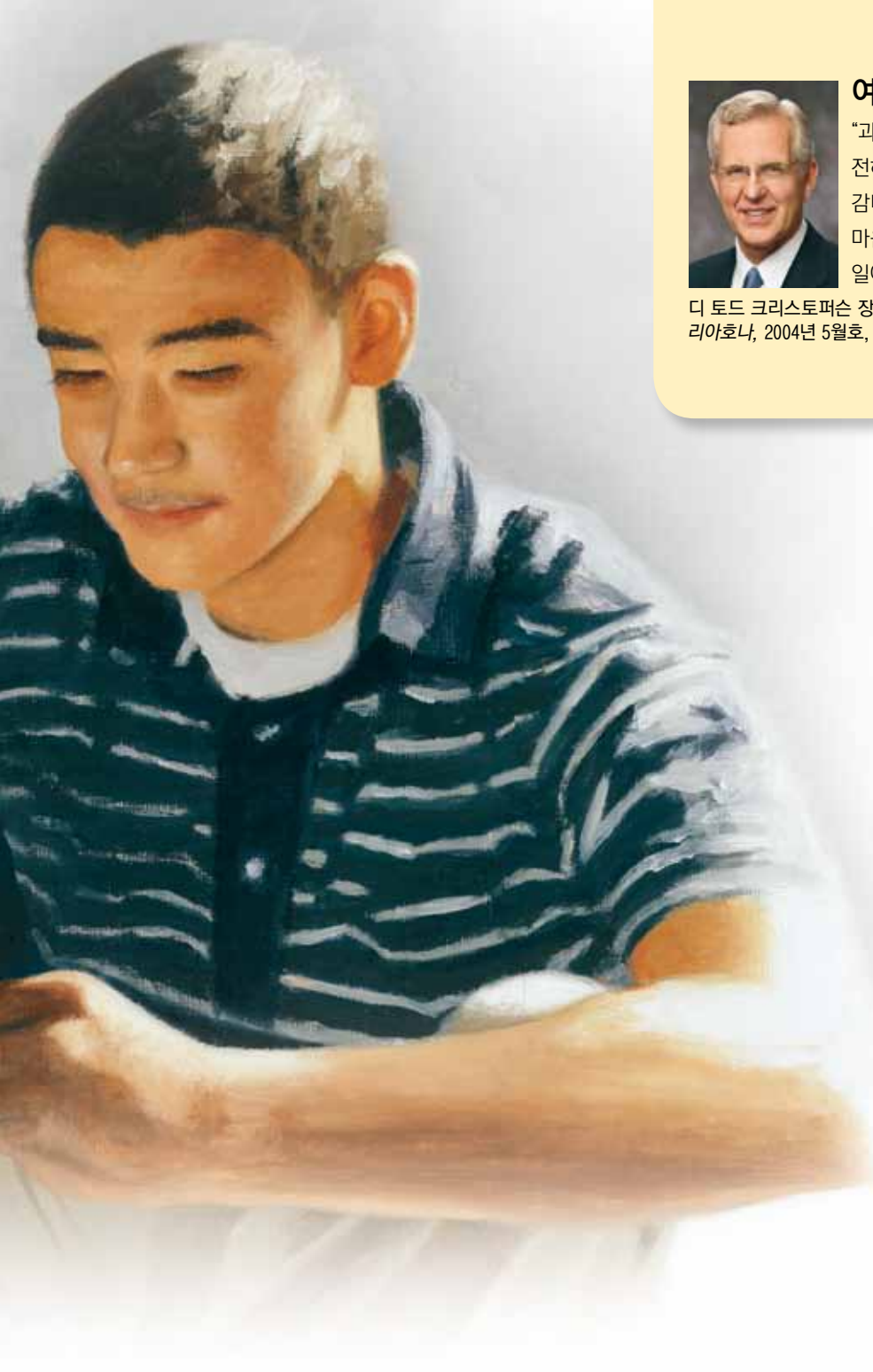
그 후 몇 달간 내 머릿속은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2007년 9월 어느 저녁, 어머니와 세 동생들과 나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하버힐에 있는 우리 마을의 한 식품점을 나와 벤치에 앉으려고

엘마서 32장에서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 감미로움을 맛보게 되는 구절을 읽던 때가 기억난다. 그 구절은 몰몬경에 대해 내가 느끼는 점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멈춰 섰다. 그때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두 젊은이가 다가왔다.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저희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색하시겠지만, 저희 메시지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승낙했다. 종교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그저 명함이나 인쇄물을 건네 주고 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무엇보다 이 젊은이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고 전하려는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의 개종



“과거에 있었던, 혹은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주님 말씀이 점점 더 여러분의 영혼에 감미롭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개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너는 돌이킨 후에”, 리야호나, 2004년 5월호, 15쪽.

느꼈고 나도 그들을 무척 사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사랑을 와드 회원들과 스테이크 청소년들에게서도 느꼈다.

선교사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삼촌의 죽음과 내 삶의 목적에 대해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알려 주었다. 장로들은 물론경도 소개해 주었다. 엘마서 32장에서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 감미로움을 맛보게 되는 구절을 읽던 때가 기억난다.(28절 참조) 그 구절은 물론경에 대해 내가 느끼는 점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내가 읽은 것과 선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은 진실인 듯 했고, 옳은 것 같았으며, 그 맛이 감미로웠다.

내가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에 걸쳐 물론경을 읽곤 하자 어머니는 내 방을 “소라게의 활동 무대”라며 놀리셨다. 당시에는 내가 느끼는 것들이 성신의 느낌이라는 점은 몰랐지만 그 길이 옳다고 느꼈다.

선교사들은 침례를 권유하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해 보라고 권고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기도해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직접적인 응답을 받았다. 침례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라, 응답은 아주 명확했다.

2007년 12월 15일, 침례 받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켈시 장로와 함께 차가운 물속에 섰고 그가 손을 직각으로

상기된 듯 했다. 메시지를 전한 후 그들은 우리 가족을 방문해도 되냐고 물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시간을 정하셨다. 결국 어머니 덕분에 내 삶은 좋은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얼마 후 어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지시면서 선교사들을 그만 만나셨지만 나는 만남을 계속했다.

나는 켈시 장로와 헨콕 장로와 쉽게 친해졌다. 그들이 나보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한몫했던 것 같다. 나는 장로들이 나를 무척 사랑한다고

들어올렸을 때 나는 영으로 충만해져서
압도되었다. 입이 귀에 걸리게
웃었지만 그런 표현으로도 내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침례 후에도 나는 계속 영을 느꼈다.
깨끗해진 느낌이었다. 내 죄를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길이
참으로 내가 따라야 할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지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

가끔씩 작은 의심들이 고개를 들
때면 그때 경험으로 돌아가 그날 받은
느낌을 떠올린다. 그 느낌은 내가
맞닥뜨리는 의심을 떨쳐 버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그 강렬한 느낌을 다시
느끼기 위해 침례의 물가로 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회개하고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새로이 할 때 다시
기억할 수 있다. 회개할 때마다 나는
깨끗해지는 느낌과 사랑받는 느낌을
되새기게 된다.

그러한 사랑을 느낄 때 조셉 스미스의
다음 가르침을 공감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족을
축복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그 폭을
전 세계로 넓혀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¹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지역 선교사들과
함께 가르칠 일이 생기면 흥이 난다.
또한 직접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나눌 그날을 고대한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330쪽.



꾸준히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앤 서니는 교회에 가입하면서 강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중요한 경험을 한 번 했다고 해서 평생 그것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안다. 앤서니는 이렇게 말했다. “늘 간증이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죠. 경전을 읽고 교회에 가야 합니다.”

앤서니는 이러한 일들을 실천할 때와 실천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복음대로 생활하는 습관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복음 원리반에서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요.(누가복음 15:11~32
참조) 아버지 집을 나갔던 젊은이에 관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아들과 같았을지도 몰라.’ 영은 여기에 나오는 아들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침례식 때 느낀 느낌만큼 강렬했죠.”

앤서니는 또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할 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저는 경전을 읽을 때 제가 생각하거나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지
문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인생에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에 관한 것이든 혹은 공부하는 내용의 의미에
관한 것이든, 질문을 던질 때 성신의 인도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살아 계시며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정직한 십일조, 위대한 축복

오스카 알프레도 베나비데스

열 일곱 살 무렵 나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었고, 선교 사업을 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싶어했다. 두어 해가 지나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는데, 나는 페루를 떠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회복된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선교사로 봉사하며 큰 축복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 서류와 여권, 비자와 의복, 그리고 물론 금전까지, 준비해야 할 많은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일은 하고 있었지만 충분한 돈을 벌지는 못했다. 마음이 답답했다. 한 달 반이 지나면 떠나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턱없이 모자랐다. 정말이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매달 내는 십일조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금액이 적다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점을 나는 알았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요구하신 10퍼센트를 내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신다. 내가 십일조를 계속 낸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모든 일은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자리가 두 개 더 생겼고 필요한 서류들도 받았다. 특히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을 포함하여 우리 와드의 많은 회원들이 다른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셨다. 우리 스테이크 회원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선교 사업을 떠날 수 있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나는 십일조의 법과 그 약속(말라기 3:10 참조)에 관하여 감사와 간증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 ■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2~33)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존 바이더웨이

후 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 연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돌연 천장에서 굉음이 들립니다.
뜻밖에도 지붕이 열리더니 눈부신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네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청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들것에 실린 한
사람을 예배당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치유되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병든 친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건물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입구조차 무리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대화가
오갔을지 모릅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지?”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이 친구를 밑으로 내리자!” 여기서
중풍병자가 이 같은 특이한 계획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누가복음 5:19~20)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여기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누가복음 5:23~24)

이야기는 감동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하다고 해 봅시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또 파티나 영화 구경, 혹은 그와 비슷한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은 발언권이 거의 없다고 해 봅시다.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 이야기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줍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강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어떤 친구를 두느냐는 매우 중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데려갈 친구를 택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친구가 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이 구절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병을 고치고 용서해 주신 분은 구주이시지만, 친구들도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랑했고 돕고 싶어했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포기하고 가버리지 않았습다. 자신이 누워 있던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친구 모습을 천장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에 나온 친구들은 용감하고 끈기가 있었으며 창의적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구주께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누가복음 5:25~26)

영적으로 약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건을 목격하지는 못했을 테지만 우리 삶에 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라고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철십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커다란 상자”에서 찾았습니다.

열 여섯 살 때 저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형에게는 가끔씩 집에 놀러 오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자신이 어떤 교회를 찾았고, 그곳 회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형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한 경험을 조금 들려주었지만 형과 제가 “교회에 맞을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친구는 우리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세상적인 것을 좇는 생활을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표준이 형과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표준을 따르면서 겪어야 할 변화가 너무 극단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이는 담배나 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이는 흡연 생활을 했고 착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런 성향을 본 그 친구는 누이가 후기 성도들이 수호하는 신념에 관심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자신과 함께 교회 활동에 참석해도 되는지 저희 어머니께 여쭙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승낙하셨지만 형과 저도 같이 가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형은 저보다 재빨랐는데 “전 싫어요!” 하고 선수 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이와 함께 활동에 갈



형의 친구는 형과 제가(위쪽) “교회에 맞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맞은편에 있는 크고 네모난 교회 건물을 처음 본 순간부터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았으며, 남자들이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커다란 상자”로 여겼던 그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활동

누이와 저는 형 친구와 함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커다란 활동실 중앙에 사람들 몇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매 선교사 두 명과 여섯 사람 남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간단한 활동을 하며 팝콘과 주스를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그렇게 행복해하지?’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이 하는 놀이나 물리적인 환경, 또는 간식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결같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행복은 그들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종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신나는 활동이나, 이국에서 보내는 휴가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할 때 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해 보았지만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회소에 들어선 저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선교사들은 모든 사람과 악수하기 위해 출구에 섰습니다. 누이가 문 쪽으로 가자 그들은 누이에게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믿기를 바랐습니다.”(엘마서 32:27)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게 복음을 더 배우도록 권유했을 때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선교사 토론을 하거나 토론을 집에서 하는 것에 흥미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집회소에서 토론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저는 활동실에 있던 사람들을 그토록 행복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행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오고,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 교리는 “[제]게 기쁨을 주[었습니다.]”(엘마서 32:28) 저는 제 삶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저는 교회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후에 부모님도 교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침례 뒤에 찾아온 시련

침례를 받은 후에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삶에서 많은 부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1982년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고도이 장로.

저는 다른 사람과 저의 개종 경험을 통해 영이 장소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회 회원이 될 만한지를 판단할 이상적인 조건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론 신권 청남들과 이제 곧 장로가 될 청남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내용이 되새겨드리겠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6쪽.

점은 때때로 교회 안에 친구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옛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이혼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 외적인 상황과 관계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기에 계속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버려 [둘 수]”(엘마서 32:36)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교회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그들은 제가 변화를 감당해내는 동안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제 간증과 행복은 커졌습니다.(엘마서 32:37 참조)

저는 다른 사람과 저의 개종 경험을 통해 영이 장소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회 회원이 될 만한지를 판단할 이상적인 조건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브라질 벨렘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아내가 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녀 중 둘은 이미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저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걸모습이나 생활 방식으로 판단하지 말도록 상기시켰습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어딘가에 또 다른 카를로스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할 때 오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

영원을 반영하다



교리와 성약 131:1~4; 132:1~20 참조.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



익명

모 텔 방에 막 들어섰을 때 전화가 울렸다. 아홉 달 된 여동생 조디에 관한 나쁜 소식이 분명했다. 태어날 때부터 의식이 없었던 조디는 24시간 관찰이 필요했고, 관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했다. 우리 가족은 절실하게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자 조디를 잠시 중환자실에 두고 온 상태였다.

내가 전화를 받았다. 할아버지 전화였다.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빠를 바꿔 나오.”

두 분은 짧게 말씀을 나누셨다. 내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조디는 세상을 떠났다.

집에 도착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 나는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 기간에 우리 가족은 상호부조회와 와드 회원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치킨 캐서롤(닭과 갖은 야채를 넣어 서양식 찜용기에 조리한 음식-웬진이)은 열세 살 소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 주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상호 향상 모임에 갔을 때 고문이 내세에 대한 공과를 가르쳤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고문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공과를 읽어 나갔다. 반원들은 앞만 쳐다봤다. 나는 흐느껴 울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울거나 내 어깨를 감싸 주기를 얼마나 바랐는데!

지금 그때 일을 돌이켜 보면, 친구들이 비정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친구들은 그저 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위안을 느끼기도 한다.

내세에 관해 설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주제로 공과가 진행될 때에는 얼마가 조연한 것처럼 한다.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모사이야서 18:9) 친구는 아마도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점을 알 것이다. 만약 모른다면 친구가 자신의 심정과 어려움을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언급하면 된다. 그때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 된다.

조디가 죽고 1년이 지난 후에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몹시 슬펐고 이렇게 생각했다. ‘다음에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길 위쪽에 학교 버스가 보였다. 이제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마침내 내 고통을 나눌 친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친구들을 기다리며 차고 앞 도로에 서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친구들이 맞은편 길로 건너가면서 서로서로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평소처럼 나를 데리러 오지도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다. 어쩌면 친구들은 내가 장례식 준비 때문에 학교에 안 갈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슬퍼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기를 바랄 것이라 여겼고, 내가 상중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재미난 일도 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라 여겼다.

친구들과 고문이 다음과 같은 점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친구 곁에 있어 준다. 친구에게 카드나 꽃을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 찾아가 본다. 친구 어깨를 감싸 주고 친구를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인 대면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한다.

평소 하는 일에 친구를 참여시킨다. 친구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일에 적응하는 중이다. 우정을 잃은 느낌까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염려한다는 걸 말해 줘야지.’ 내 경험을 떠올려 보니 지금 당장 친구에게 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친구 집으로 걸어가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만약 나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가는 것을 가족들이 싫어할지도 모른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야기할까?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친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 아버지와 나이 많은 형제들은 장례식을 계획하느라 바빴다. 우리는 산책을 하러 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데 시간을 거의 다 보냈기 때문이다. ■

공통점이 많은 두 자매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터 올이 18개월밖에 안 되는 자매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페루 쿠스코에 사는 마릴리아 피와 니콜레 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라임이나 레몬 주스에 생선을 재워서 만든 페루 전통 요리인 세비체(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해산물에 레몬을 첨가한 라틴식 화-웁긴이)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리하이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찬송가 책에 나오는 유일한 찬송가라 해도 마릴리아와 니콜레는



마릴리아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세비체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 리하이의 꿈(니파이전서 8장 참조)
 좋아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송가 50장)
 학교에서 좋아하는 과목: 과학
 취미: 노래 부르기, 춤 추기, 자전거 타기



니콜레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세비체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 리하이의 꿈(니파이전서 8장 참조)
 좋아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송가 50장)
 학교에서 좋아하는 과목: 수학
 취미: 배구

그 노래를 즐겁게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간증도 똑같이 강해요

이 두 자매에게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강한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거든요.” 열 살인 니콜레가 말합니다. “제가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세요.”

니콜레는 아주 많이 아픈 적이 있는 친구에 대해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친구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몰라 했고 결국 의사는 그 친구를 비행기에 태워 페루 수도인 리마로 보내려 했습니다. “저와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떠나는 게 싫었어요.” 니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구를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제 친구는 정말 나아어요.”

열한 살인 마릴리아가 리하이의 꿈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사실을 깨달은 리하이가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상화: 데니스 케바. 사진 촬영: 애덤 시 올슨

마릴리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뭔가를 부탁하면 응답을 해 주세요.”

두 자매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니파이와 샘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을 통해 가족을 도와요

이 모든 공통점과 더불어 니콜레와 마릴리아는 몇 가지 다른 점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릴리아는 과학을 좋아하는 반면, 니콜레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마릴리아는 춤추고 노래하고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니콜레는 배구를 좋아하고 동물들을



해발 3,400미터에 자리를 잡은 쿠스코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역사가 약 900년에 이르는 쿠스코는 미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마릴리아는 요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마릴리아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 봅니다. 니콜레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용서를 잘 해 줍니다.

이 자매들은 자신의 특성과 재능을 살려 가족을 돕습니다.

마릴리아와 니콜레는 부모님과 두 여동생, 남동생 한 명과 같이 안데스 산맥에 있는 높은 지역에 삽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두 자매의 공통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파이와 샘이 순종하며 가족을 돕고 싶은 소망을 똑같이 지닌 것처럼 마릴리아와 니콜레도 각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가족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가 널 데리고 갈 거야!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운전을 하는 도중에 이런 간판을 지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봉사입니다.” 그 말은 쉽사리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봉사, 즉 주님께 하는 봉사입니다.

수년 전, 저는 한 아름다운 열두 살 소녀 제이미 팔머에게 축복을 줄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이제 막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이미는 암이 자라나는 다리를 몇 차례에 걸쳐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녀 반원들과 오랫동안 계획해 온 활동인 굽이진 길을 도보로 여행하는 일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일이 되었다고 제이미는 생각했습니다.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자기 없이 도보 여행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녀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제이미, 너도 같이 가야 해!”

“하지만 난 걸을 수 없는 걸.”

제이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널 꼭대기까지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중한 청녀들은 모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크게 기뻐하셨던 그 잊지 못할 날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경에는 고결한 베냐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정말로 중요한 봉사는 우리 모두가 부름 받은 봉사,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봉사입니다. ■

200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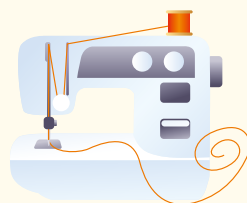


우리도 봉사했어요

이 어린이들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바느질 봉사

미 국 오클라호마 주에 사는 아홉 살 난 사라는 작년엔 아이티에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잃은 여자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사라는 생일 선물로 재봉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간단한 치마를 만들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수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바늘땀을 뿜어낼 때에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금세 치마 열여덟 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티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기 위해 그 치마를 교회 인도주의 센터에 보냈습니다.



책가방 봉사

미 국 오리건 주에 사는 아홉 살 난 알렉스와 여섯 살 난 노아는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가득 담은 책가방 열다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알렉스와 노아는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책가방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고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

릭 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삽니다. 릭키가 참석하는 지부에서는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했습니다. 릭키는 아홉 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릭키는 5년 동안 피아노 교습을 받아 왔으나 몇몇 찬송가는 어려웠습니다. 요즘 릭키는 매주 성찬식 모임에서 부를 찬송가를 고르고 반주를 합니다. “떨리기도 했지만 지부에서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찬송가를 칠 때면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비누를 구하기 위한 쿠키

미 국 유타 주에 사는 일곱 살 난 엘리아나는 스테이크에서 지진 피해자들에게 줄 위생용품 세트에 넣을 비누 300개를 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아나와 엄마는 쿠키를 많이 만들어서 비누와 바꾸거나 쿠키를 팔아서 비누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들은 집집마다 쿠키를 적어도 열두 개 이상씩 주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쿠폰으로 엘리아나와 엄마는 비누 17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몫을 다하고 싶어 한 저와 제 가족을 축복하셨음을 알아요.” 엘리아나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좋은 방법을 찾으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3쪽을 보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낼 방법이 나와 있어요.

경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안나 마리아 코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가 본 적이 없는 마을에 가거나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지도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에서 인도와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지도”는 경전입니다. 경전은 우리가 왜 지상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스러운 책입니다.

경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태어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슬프거나 외로울 때 도움을 주시도록 그분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도와주시고자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따르려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우리를

매일 인도해 줄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돌아와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활동

65쪽에 나오는 참조 성구를 모두 읽고 어울리는 그림과 짝지으세요. 가족들이 가정의 밤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



해의 영광



교리와 성약 93:29

창세기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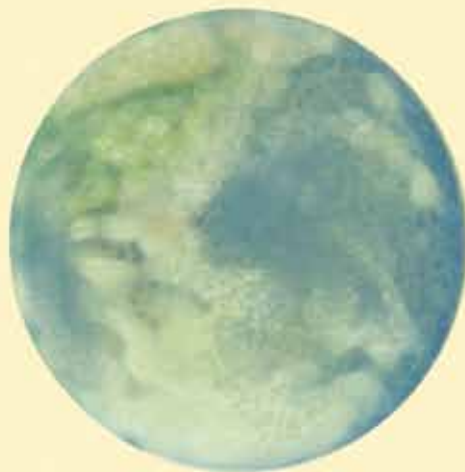
모세서 5:4

제3니파이 17:18~24

제3니파이 22:13

엘마서 11:42

교리와 성약 76:9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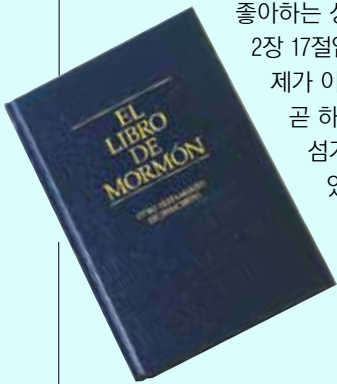
전세 생활



우리들 이야기

어느 날 교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를 느꼈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성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저희 가족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는 분들 모두에게 복음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물몬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는 모사이야서 2장 17절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베르토 시,
10세, 볼리비아**



엘레나 지, 9세, 벨로루시

제가 침례 받을 때 느낀 그 행복한 기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침례를 주셨고, 저희 남매들은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간증을 나누고 싶으니 물으셨는데, 저는 제가 배운 초등학교 노래 중 제 느낌을 표현하는 한 곡을 부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무지개를 봐요 비 개인 하늘에 이 지구 다시 맑아져 더 아름다워요"("나 침례 받고 나면", *어린이 노래책*, 53쪽) 노래하는 동안 저는 마치 제 심장이 밖으로 나올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 기분과 저희 가족의 표정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에스더 에프, 8세, 코스타리카



아홉 살 난 마르셀로 비는 브라질에 삽니다. 마르셀로는 구주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마르셀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마르셀로는 *리아호나*의 어린이난을 즐겨 읽습니다.



베 네수엘라 바르키시메토 스테이크 카부다레 와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전 세계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찬송가 부르기를 아주 좋아하고, 초등학교 친구들과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몬슨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슈아 에이, 12세, 필리핀



저 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껏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을 조셉이라고 지으셨는데,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요셉의 영어 이름이 조셉임-웁긴이)이 이룬 위대한 업적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사람을 기근, 즉 굶주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지상에 참된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이 두 위대한 조셉은 제가 복음대로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문경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는 앨마서 8장입니다. 여기에서 앨마는 주님께 순종하고, 앰몬아이하로 돌아가 앰울레크와 함께 앰몬아이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저는 앨마처럼 끈기 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셉 오, 11세, 가나

‘우 리들 이야기’에 기사를 보내고 싶다면 liahona@ldschurch.org 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이메일 제목란에는 “Our Page”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거미, 그리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며”(힐라맨서 5:30)

조슈아 더블류 호킨스
실화에 근거

“**초** 대해 줘서 고마워, 제이크.”
브리튼이 친구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가야 해.”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브리튼은 제이크 집에 올 때 지나다니는 진흙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브리튼의 두 눈은 들판을 향했습니다. 브리튼은
그곳을 “밀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곳에
열대 식물이나 야생 동물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바다 사이로 난 작은 길에 키가 큰 풀과
마른 잡초가 무성할 뿐입니다. 이 길은 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브리튼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재빨리 들판
둘레에 세워진 울타리 기둥을 넘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닥! 획! 브리튼이 길을 따라 땅을 밟고 걸을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와 풀이 탁탁 부러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등에 내리 쬐는 따가운 햇볕
때문에 땀이 나 옷이 축축해졌습니다. 그때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브리튼은 집까지 바람과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브리튼은
개울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빨리 달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막 개울을





뛰어넘으려는데 갑자기 **멈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리튼은 즉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들바람에 풀이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소리만 낼 뿐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리튼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귀에 대고 속삭이기라도 하는 듯이 조용하면서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리튼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개울을 뛰어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브리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코 앞에 그물처럼 펼쳐진 거대한 거미줄이 개울 옆 길을 가로질러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거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브리튼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거미를 응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길을 따라 밀림 밖으로 다시 달려 나왔습니다. 결국 진흙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브리튼은 문으로 뛰어 들어가서 서둘러 엄마를 찾았습니다. 브리튼은 한 번 숨 쉴 때마다 하나씩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밀림을 통과해서 갔던 일과 음성을 들은 일, 거미를 맞닥뜨린 일까지 말입니다.

“엄마, 거미랑 이만큼 가까이 있었다니까요!” 브리튼은 엄마께 보여 드리려고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나! 오싹했겠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들은 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모르겠어요.” 브리튼은 말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바람이었을까요?”

“가정의 밤 시간에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대해 배운 일을 기억하니?”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맞죠?”

엄마는 부엌 식탁 옆에 있는 선반에서 경전을 꺼내어 힐라맨서를 펼치셨습니다.

“여기에는 니파이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장면이 나온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레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요, 도리어 보라,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도되”(힐라맨서 5:30)

“와! 바로 그거예요, 속삭임 같았어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었다고요!”

엄마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 음성을 들었지. 그리고 적절하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인 거지.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브리튼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사실에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닿을 만한 곳에 계시며 성신은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계십니다.”

일레인 에스 톨튼, 본부 청년 회장,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18쪽.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에스덜린 킨레드 리
실화에 근거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고리와 성약 4:3)

1. 브렛은 신이 났습니다. 지금
막 토니 형에게서 편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토니 형은
선교사입니다. 형이 떠나기 전에
브렛은 형에게 자기도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엄마, 사람들에게
봉사해서 형처럼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 브렛, 네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 사업이란 사실을
아니? 네가 어떤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구나. 사랑하는
토니 형이.





4. 햄튼 아주머니께서 토요일에 낙엽을 쓸어 모으실 거란다. 그 일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선교 사업을 하기에 좋은 방법 같니?

네! 그런 다음 형에게 제가 한 일을 모두 적어서 보내 주 거예요.

5. 토요일에 브렛은 자리에 앉아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토니 형, 나는 선교 사업이 무척 재미있어. 형도 나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오늘 햄튼 아주머니 뜰에서 그분을 도와드렸어. 아주머니는 과자를 주셨지. 아버지가 함께 교회에 가시겠냐고 아주머니께 여쭙 봤는데 아주머니가 좋다고 하셨어. 사랑을 담아, 브렛.

6. 브렛은 편지를 접어서 햄튼 아주머니 뜰에서 주운 나뭇잎 한 장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부모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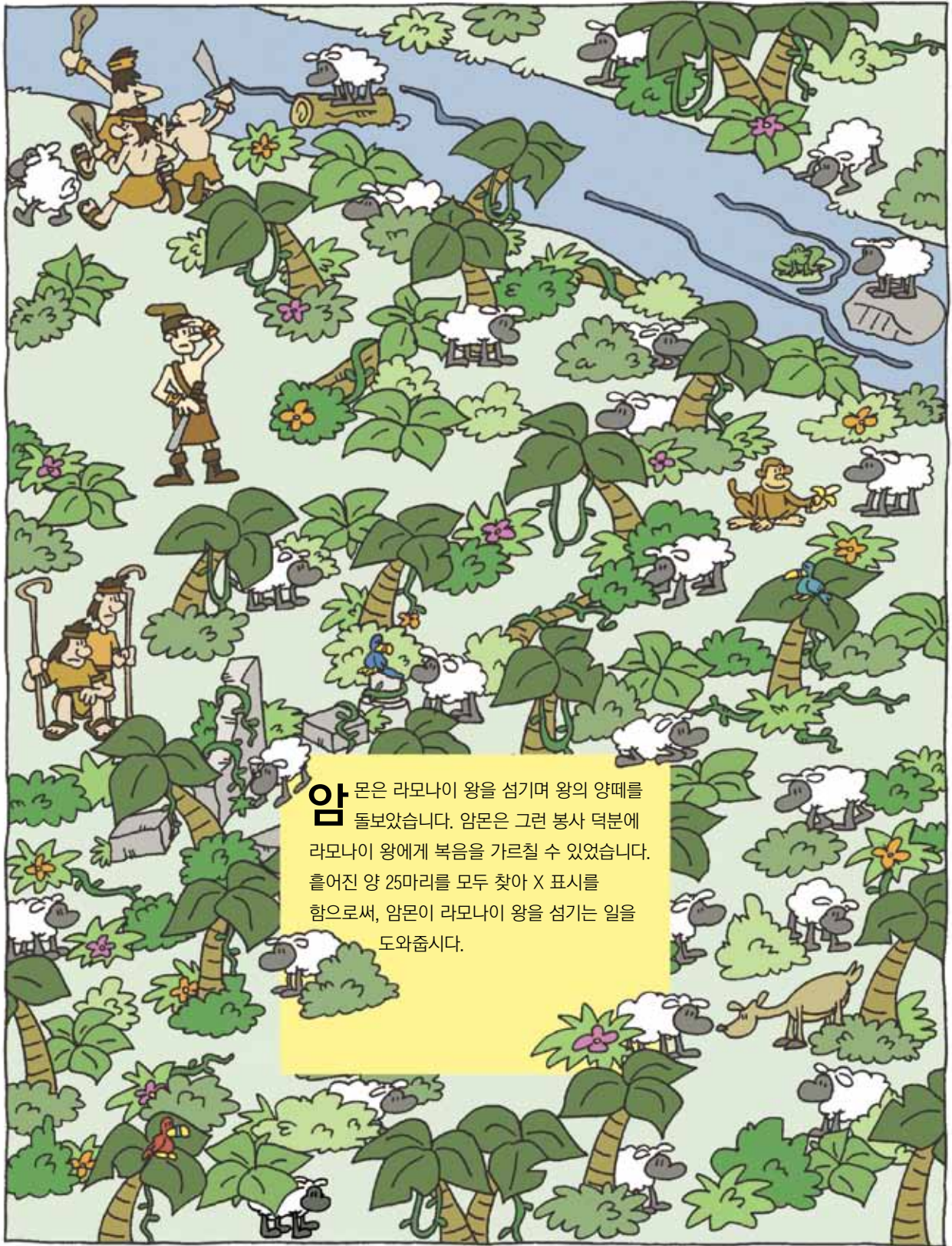
- 자녀들에게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양들을 보호하는 그림을 보여 주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앨마서 17~18장 참조) 이 기사에서 브렛이 봉사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듯이 암몬도 봉사를 하면서 간증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72쪽에 있는 “라모나이 왕의 양 찾기” 활동을 한다.
- 자녀들과 함께 그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목록을 만든다. 자녀들이 목록에 있는 몇 가지 일을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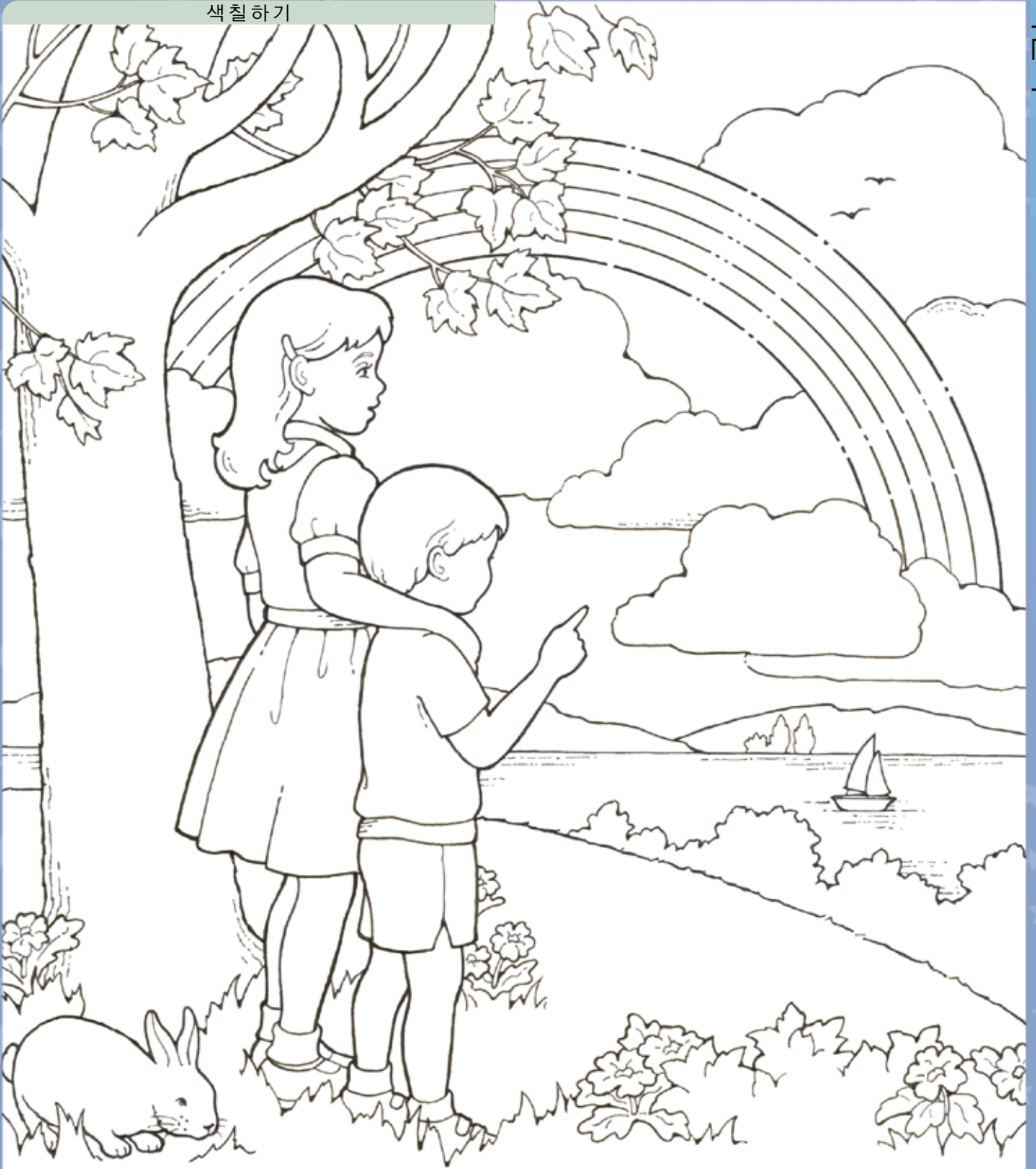


7.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라모나이 왕의 양 찾기

아리 반 데 그라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훈련 모임에서 평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새로운 교회 지침서가 소개된 2010년 11월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과중한 짐을 담당하는 감독을 돕고 구원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와드 평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침서 제2권에서는 와드 평의회와 평의회 회원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감독의 업무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역할에는 “와드 차원의 중요한 사안에서 감독을 돕는 일과 활동 촉진과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구조 사업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된다.

평의회의 중요성

11월 훈련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는 본부, 지역, 스테이크, 와드 차원에서 평의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새 지침서는 교회 평의회의 역할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쿡 장로는 감독이 교회 일을 지휘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와드 단위 평의회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지침서에 실린 내용을 세 평의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세 가지 평의회에는 감독단, 신권 집행 위원회, 와드 평의회가 포함된다.

감독단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 신권 집행 위원회도 계속 정기적으로 모이며, 이전에 와드 복지 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일부 항목을 다룬다. 쿡 장로는 와드 평의회의 모임 횟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제안했다.

복지 위원회 모임에서 담당하던 모든 일은 신권

집행 위원회와 와드 평의회에서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 모임은 더는 열리지 않는다.

쿡 장로는 새 지침서를 통해 “와드를 운영하는 일에서 감독의 열쇠 아래 평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와드 평의회를 강화하다

새로운 지침서는 감독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하고, 감독을 돕는 평의회 회원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와드 평의회를 강화한다.

쿡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와드 평의회에서 가장 크게 노력하는 일은 와드의 구원 사업입니다. 현재 많은 사안들이 감독에게 직결되고 있습니다. 감독이 복지, 지속적인 활동, 활동 촉진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안들을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그리고/또는 개인에게 은밀하게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쿡 장로는 “이스라엘의 판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계속해서 감독이 처리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회원이 동의할 경우, 감독은 중독 치료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그 밖의 다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회원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상담을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쿡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와드 평의회의 회원들은 일의 대부분을 와드 평의회 밖에서 수행합니다. 보좌들과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쿡 장로는 감독과 와드 평의회의 짐을 덜기 위해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정원회나 조직 내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을 확인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모든 회원이 염두에 둘 일

이번 훈련 방송에서 패널 토론에 참여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제프리 알 홀랜드

“와드 평의회의 주된 노력은 와드의 구원 사업입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칠십인 회장단의 윌트 에프 곤잘레스 장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는 모든 평의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와드에 주어지는 모든 계시의 요소가 오직 감독을 통해서만 온다는 잘못된 통념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에게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계시를 인정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계시가 오로지 감독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나 장로는 평의회가 성신의 영향력 아래 움직이기 위해 감리 역원이 일단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홀런드 장로는 평의회에서 여성의 가치를 경시하는 문화에 대해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마땅히 평의회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 말할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패널 토론단은 현명한 지도자는 경청한다는 점을

두 번째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은 2011년 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며,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의 책임, 정원회와 보조 조직 업무, 교회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수행하기에는 회원과 지도자가 부족한 단위 조직의 특수한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춘다.

강조했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말할 때와는 반대로 들을 때에 분별의 은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밸라드 장로는 경청이라는 원리는 모든 평의회 회원들에게 적용되며, 어떤 회원이라도 대화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밸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 평의회 체제에 영이 작용한다면 사업은 진척될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아버지의 자녀를 구조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모두 힘을 보태야 합니다.” ■

주 1. 와드, 감독, 감독단이란 용어는 또한 지부, 지부 회장, 지부 회장단을 가리키기도 한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이란 용어는 지방부, 지방부 회장, 지방부 회장단을 가리키기도 한다.

효과적인 와드 평의회

다음은 2010년 11월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주어진 효과적인 평의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이다.

효과적인 평의회

- 모임에서 일정 세우기, 활동 계획, 기타 행정 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한다.
-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 평의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유도한 다음, 감독이 내린 결정에 뜻을 함께하게 한다.
- 개인과 가족, 조직의 필요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결집한다.

- 모임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이전 지침서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자주 하되, 모임 시간은 대체로 60~90분을

넘지 않게 한다.

- 기밀을 지킨다



새롭게 문을 연 LDS.org

브리어나 올라비슨
교회 잡지

현 재 운영 중인 LDS.org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자료 전체를 직접 제공한 지가 거의 5년이 되었다. 이후 인터넷은 급격히 변화하며 기술이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LDS.org에도 변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LDS.org, 즉 LDS.org 3.0은 인터넷의 강점을 살려 더욱더 시각적으로도 매력있고, 유용한 내용을 담으며, 검색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

일부 영역은 아직 개발 중이다. 새로운 사이트 개통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이트 구성 전략을 재점검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칠십인인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는 LDS.org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용자의 필요 사항보다는 교회 부서들의 의사 전달 사항에 따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고안하면서 저희는 ‘교회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교회는 회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LDS.org 3.0은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더 쉽게 온라인 상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방법 및 나누는 방법을 제공하고,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경쟁으로 요란한 인터넷에서 새로운 LDS.org 는 가장 중요한 음성, 즉 선지자의 음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한다.

LDS.org의 책임자인 리 기본스 형제는 현대 선지자들과 저명한 사도들이 행한 성역과 오늘날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 “통로”를 만들어



새로운 LDS.org는 현대 선지자가 전하는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학습에 쓰일 더 많은 도구들을 제공하며, 더 훌륭한 검색 기능을 선사한다.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이 사이트를 마련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트에 있는 The Prophets and Apostles Speak Today(현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난에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전한 최근 말씀과 그들의 삶과 성역에서 얻은 개인적인 통찰이 실려 있다.

온라인 복음 공부를 위한 도구

이전 LDS.org는 경전과 기타 교회 자료에 접속만 할 수 있었지만 새로 문을 연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이 제공된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성구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고 짧은 글을 쓰거나 학습 일지를 만들고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자료를 철해 둘 수 있다. 이 특별한 기능은 경전, 연차 대회, 공과 자료, 교회 잡지 등을 포함한 사이트의 모든 학습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복음 나누기

새로운 사이트에는 동영상과 오디오, 사진, 복음 그림, 복음 메시지 전달을 위한 기타 시각 자료가 풍부하다. 이러한 자료들이 교회 회원들에게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복음처럼 공유해야 한다. 사이트 대부분이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및 이메일과 통합되어 있기에 사용자들이 쉽게 내용을 나누고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한다.

기본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단순하게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복음을 더 많이 나누도록 행동을 촉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검색 기능

개선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사이트 검색 기능이다. 거의 모든 화면 위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검색 창은 자주 검색되는 주제에서 내용을 선택하여 간단한 추천 검색 결과 목록을 보여 준다. 검색 용어와 일치하는 모든 자료의 종합 목록도 볼 수 있다.

검색 결과 화면에는 더 좋은 결과물을 제시하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제공한다.

언어

New.LDS.org는 전세계 교회를 위한 웹 사이트이며, 번역을 마치고 승인을 얻으면 11개 언어로 공개될 예정이다. 교회 회원 중 약 90퍼센트는 한국어, 광둥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북경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11개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한다. ■

봉사를 시작하는 신임 성전 회장들

20 10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53명에 이르는 새로운 성전 회장과 그 부인들이 전 세계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전 세계에는 현재 134개 성전이 운영 중이며, 건축이 발표되었거나 공사 중인 성전은 23곳이다.

한국 서울 성전	송평종과 양계영	조지 디 아레빌라가와 어머 델 토로 아레빌라가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알렉산더 에이 오둠과 티리저 에이 오둠*	미네소타 세인트폴 성전 시 켄트 휴와 카렌 제이 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	케네스 에스 암스트롱과 유리얼 디 암스트롱	미시간 디트로이트 성전 필립 지 폴시퍼와 마거릿 케이 폴시퍼
네바다 리노 성전	프랭클린 비 워즈워스와 조이스 시 워즈워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 루이스 엠 페티가와 후아나 피 페티
네브래스카 윈터쿼터스 성전	모리 더블류 스쿠프와 조안 스쿠프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 리 더블류 크레이크와 코니 시 크레이크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성전	더글러스 엠 로빈슨과 캐롤 앤 로빈슨	브라질 캄피나스 성전 조지 에이 오크스와 자넷 앤 오크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성전	제이 미첼 스코트와 지 수 스코트	브라질库里티바 성전 호세 엠 에이리어스와 아이다 시 에 이리어스
뉴욕 맨해튼 성전	더블류 블레어 가프와 수잔 제이 가프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클레어 오 튜슨과 앤 튜슨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	제임스 던롭과 프랜시스 엠 던롭	아이다호 트윈폴스 성전 칼 이 넬슨과 비벌리 시 넬슨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에이치 요르트 닐슨 하이브로크와 엘 렌 하이브로크	알래스카 앵커리지 성전 멜빈 알 퍼킨스와 샤론 브이 퍼킨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성전	래리 케이 베어와 조안 더블류 베어	앨라배마 버밍햄 성전 켄트 알 캠펠과 제니얼 알 밴 캠펠
멕시코 과달라하라 성전	하이메이 에프 에레라와 엠 터리저 에레라	앨버타 에드먼턴 성전 브라이스 디 카드와 캐서린 카드
멕시코 메리다 성전	지니프 메히아와 엘리자베스 메히아	영국 런던 성전 시 레이먼드 로우어리와 아이린 엠 로우어리
멕시코 몬테레이 성전	시 후안 안토니오 마추카와 이사벨 에스 마추카	오리건 메드퍼드 성전 데이비드 제이 데이비스와 폴린 데이비스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 성전	매뉴얼 아라이즈와 엘사 엠 아라이즈	오리건 포틀랜드 성전 마이어런 지 차일드와 걸다인 티 차일드
멕시코 탐피코 성전	배리 알 유달과 리사 엘 유달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성전 말콤 알 말리스와 루시앤 엠 말리스
멕시코 투스틀라 구티에레스 성전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성전 제프리 제이 리디코트와 레슬리 엠 리디코트
		오하이오 컬럼버스 성전



- 에드워드 제이 브란트와 캐롤 비 브란트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비 존 갤브레이스와 캐롤 갤브레이스*
- 워싱턴 스포칸 성전
찰스 에이치 렉트와 엘리자베스 엠 렉트
- 워싱턴 시애틀 성전
도널드 이 퓨와 제인 에이치 퓨
- 워싱턴 컬럼비아 리버 성전
티 던 무디와 패트리스 에이 무디
- 유타 드레이퍼 성전
러셀 엠 튜얼러와 크리스틴 시 튜얼러*
- 유타 세인트조지 성전
브루스 시 하펜과 마리 케이 하펜
- 유타 프로보 성전
로버트 에이치 데인즈와 재닛 엘 데인즈
- 일리노이 나부 성전
스펜서 제이 콘디와 도러시아 에스 콘디
- 일리노이 시카고 성전
폴 더블류 캐슬턴과 앤 피 캐슬턴
- 중국 홍콩 성전
존 엠 아키와 리디아 시 아키
- 칠레 산티아고 성전
홀리오 이 오테이와 엘리너 오테이
-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성전
폴 비 헨슨과 주디스 에이치 헨슨
- 테네시 내슈빌 성전
알 로이드 스미스와 주디 알 스미스
- 테네시 멤피스 성전
티 이반 네베커와 루 앤 더블류 네베커
- 텍사스 델러스 성전
로버트 시 패커드와 탈매지 엠 패커드
-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
피터 에프 호프야테와 래니 에이 호프야테
-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디 쳄드 리차드슨과 엘리자베스 비 리차드슨
- 페루 리마 성전
로버트 더블류 리즈와 케이 리즈
- 플로리다 올랜드 성전
데이비드 티 할버슨과 래너 할버슨

아이다호 트윈폴스 성전은 2010년 11월 1일에 새 회장이 부름 받은 53개 성전 중 하나다.

**이들 부부는 연 초에 봉사를 시작 했다.*

뉴스 속에서

자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점

천사백만 교회 회원이 교회 자료를 얻기 위해 130개 소매점 중 하나를 찾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교회 배부 센터는 그 과정을 반대로 적용하여 새로운 온라인 상점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Store.lds.org에서 복음 공부 자료, 음악, 미디어, 그림, 가먼트, 성전복, 가정의 밤 자료와 기타 자료를 쉽게 주문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무료로 자료를 배송 받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 빠른 배송도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확인한다. 각 나라에 특정한 온라인 상점을 이용하면 그 나라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그 지역 통화로 모든 가격을 볼 수 있다. 일부 무료 자료는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이트는 Idscatalog.com을 대신하며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개통되었다. 한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들은 몇 달 내로 이용할 수 있다. ■

애독자 편지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저는 제가 리아호나를 읽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아호나 안에 선지자의 말씀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물론경과 기도가 참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 삶에 복음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티아나 지, 15세, 우루과이

내 영혼 깊숙이 스미는 평화

저는 아직 여러분의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만, 결국 진리를 발견하고 기쁨, 사랑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가 준 리아호나와 물론경을 읽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안 이후 저는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고, 지금은 큰 평안이 제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명백하면서도 교훈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업에 영이 함께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교회가 없지만 회복된 복음이 이 도시에 전해져서 제가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코난 알프레드, 코트디부아르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단신

온라인으로 이용하게 된 일본어 경전 합본

일본어로 된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합본을 scriptures.lds.org/jpn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음성 녹음 자료도 같은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며 CD로도 곧 이용할 수 있다. 경전 사이트에는 각주, 지도, 사진이 실려 있으며 독자들은 성구를 표시하고 핵심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 현재 경전 사이트는 19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교사들을 도울 청소년 자료 지도서 출시

2011년에 사용할 아론 신권 및 청녀 공과 교재인 아론 신권 교재 3과 청녀 교재 3을 보완할 새로운 지도서 자료가 나왔다. 이 지도서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과 관련된 최근 연차 대회 참조문, 토론 질문, 보충 성구 참조, 기존 공과에 활력을 불어 넣을 활동 제안이 실려 있다. 지도서는 교회 배부 센터나 온라인 resourceguides.lds.org에서 27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신약 프로젝트에 참여할 배우를 찾습니다

후기 성도 영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신약 영화를 위해 교회는 전 세계로부터 참가자들을 유치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웹 사이트 casting.lds.org를 만들었다.

신약 프로젝트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영화 및 비디오 작품에 배우나 엑스트라로 참여하는데 관심 있는 교회 회원들은 이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촬영은 2011년 봄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시작하여 여름 내내 계속될 예정이다.

교리와 성약 학습을 위한 새로운 DVD 출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공부에 유용할 새로운 DVD 네 개 세트가 나왔다. 이 세트에는 대화형 차트, 후기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 인용문, 그림, 학습 활동이 들어 있다. 비디오로는 유산, 주님의 산과 2005년 12월부터 조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조셉 스미스, 회복의 선지자 등이 있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시각 자료 DVD는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주문은 온라인 store.lds.org나 전화 1-800-537-5971을 이용한다. 자료 구입 가능 여부는 지역 배부 센터에서 확인한다.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영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24쪽, “거미, 그리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 68쪽: 이 기사들은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친다. 기사 하나를 소리 내어 읽기 전에 영을 인식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족들에게 권유한다. 기사를 읽은 후에 성신을 느껴 본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잃은 자를 찾는 비유” 32쪽: 가족에게 영적으로 길을 잃은 이들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숨바꼭질 놀이를 할 수 있다. 놀이 후에 이 기사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읽고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 것에 대해 배운 점을 나눈다. 우정을 나눌 이웃이나 친구로는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권유할 방법을 토론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54쪽: 이 기사는 “교회 회원이 될 만한 이상적인 인물이란 없다”고 가르친다. 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음식 통조림에 붙은 상표를 바꾸거나 소금통에 설탕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가족에게 통조림 식품을 먹거나 “소금”을 맛보기 위해 선택하게 한다. 이렇게 한 후에 고도이 장로의 기사를 읽는다. 교회 회원이 될 만한 “이상적인 인물”이 아닌 듯 해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본다.

“우리가 널 데리고 갈 거야!” 62쪽: 가족이 함께 이 기사를 읽고 가족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을 토론한 다음,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여러분의 계획을 다음 가정의 밤 활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

신랑 잔치에 자리 하나

멜리사 메릴
교회 잡지

결 혼 피로연에 혼자 가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에게 초대를 받았다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할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다.

결혼식 당일, 나는 피로연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도착했다. 빈 자리 하나를 발견한 나는 식탁에 자리한 여성들 중 한 사람에게 그 자리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물어보았다.

“당신이 여기에 앉게 되어 있나요?” 그 여성은 의심스럽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나로서는 그녀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혹은 왜 그런 식으로 물어 보았는지 알 수 없었다. 손님 명단을 점검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리가 사전에 예약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제시간에 도착했고 차림새도 적절했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나는 살짝 웃어 보이고 나서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저는 신랑 친구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나는 자리를 같이 한 여섯 쌍과 친근하게 대화해 보려 시도했다. 이미 내가 겪을 수 있었던 모든 불편함은 내가 받은 “환대”로 더욱 증폭되었다. 나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신랑을 빼고는 낯익은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뽀뽀는 통로 앞쪽에서 신부 옆에 있던 내 친구, 신랑이 일어섰다. 그렇게 일어난 그는 연회실 반대 편에 있는 나를 보았다. 친구는 가만히 서서 나를 향해 웃어 주었고, 이어서 손을 가슴에 얹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와 줘서 고마워.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자리를 함께 해 줘서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몰라.”

행복과 안도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다른 어느 누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라도, 신랑이 보기에 나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몸짓을 받으며 웃어 보였다. 나는 내가 얼마나 친구 부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해 주고 싶었는지를 친구가 알아주길 바랐다. 그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느낀 어색함도 그 10초간 나는 교류로 깨끗이 날아가버렸다. 나는 자신감 있게 나머지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며칠 뒤 상호부조회 공과를 준비하던 나는 마태복음 22장을 공부하면서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에 관한 기록을 읽었다. 여기에서 아들은 구주를 의미한다. 그 경전 구절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그분의 율법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만이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앙을 지킨



행복과 안도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다른 어느 누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라도, 신랑이 보기에 나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이며, 흰 옷을 입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모든 역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지만 그 주초에 한 그 경험 덕분에 더더욱 그랬다.

공과를 가르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연회에 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초대장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순종뿐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게다가 그 잔치에서 손님들은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분명히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완벽한 순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나는 신랑을 만날 자격을 갖추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곳에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65, 166쪽.